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이어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지리 교수-학습 방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地理教育專攻

張元碩

2016年 8月

이어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지리 교수-학습 방안

指導教授 손 명 철

張 元 碩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8月

張元碩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6年 8月

# Teaching-Learning Plan in Korea Geography to Forster Jeodo's Identity

Jang Won-Seok  
(Supervised by professor Son Myong-Ch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6.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n Myong Cheol , Prof. of Geography Education  
.....

.....  
(Name and signature)

.....  
Date

Major of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 이어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지리 교수-학습 방안

장 원 석

지리교육전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요약:** 최근 각 국가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영토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다. 각 국가마다 자국의 안전과 경제적 자원 확보를 위해 관리 가능한 공간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분쟁의 한 지점인 이어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서 이어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지리 영역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확보하여야 할 것인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어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이어도와 관련된 기술 내용을 분석하여 이어도 교수-학습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에 따르면 출판사별로 이어도에 대하여 접근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 있고, 내용도 풍부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한국지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념 학습, 토론 학습, 스토리텔링 학습의 세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영토, 분쟁, 이어도, 정체성, 배타적 경제수역

## ABSTRACT

# Teaching-Learning Plan in Korea Geography to Foster Jeodo's Identity

Jang, Won-seok

Major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mmary : Recently, there have been frequent acts of many countries to maximize their own interest. Thus, there are endless dispute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the territorial disputes are most frequent since each country intends to expand their manageable space to ensure safety and secure profitable resources. There are no exceptions around Korea.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we should think over what we must protect and how to do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what Jeodo, which is involved in one of the territorial disputes, means to us. The following purpose is to find out how to prepare Korea Geography class to foster the Jeodo's identity. In order to do so, I plan to organize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Jeodo's identit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es on this. In addition to that, I intend to analyze the description related to Jeodo in Korea Geography textbooks to prepare teaching-learning strategies on the island. When we analyze current textbooks, we can confirm that approaches to Jeodo are very different between publishers, and enough contents are not provide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Teaching-learning plan in Korea Geography to foster Jeodo's identity through 3 types of learning: concept learning, discuss activity and storytelling.

Key words : territory, dispute, Jeodo, identity, exclusive economic zones

# 목 차

I. 머리말 -----	1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1
2. 연구 동향과 연구 의의-----	5
II.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과 정체성-----	13
1. 이어도의 지리적 기초-----	13
2. 이어도 지명의 중요성-----	17
3. 제주 사람들의 이어도 인식-----	21
4. 이어도에 대한 제주 지역 고등학생의 인식-----	31
III. 이어도 영유권 분쟁 실태-----	35
1. 동아시아 국가 간 주요 영토분쟁 지역-----	35
2.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 주요 분쟁-----	38
1) 영해기선(base line) 설정 문제-----	38
2)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련한 대립-----	39
3) 방공식별구역과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	44
4) 해양 경계 분쟁에서 중국 주장의 허구-----	46
5) 이어도 분쟁을 유도하는 중국의 의도-----	54
3.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59
IV. 이어도의 한국지리 교수-학습 방안-----	62
1. 한국지리 교과서 이어도 기술 실태-----	62
1) 이어도 기술 교과서 유형-----	62
2) 기술 내용 및 분석-----	62
2.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에 필요한 요소-----	72
1)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와 교수-학습 과정-----	72

2) 학습 내용 구성과 방법의 지역화 -----	76
3) 학습자 주도의 탐구형 교과서 개발 -----	79
3. 한국지리에서 이어도 교수-학습 방안 -----	81
 V. 맺음말 -----	 101
 <참고 문헌> -----	 105
<부록> 설문조사 ‘이어도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	110



## <그림 차례>

<그림 1> 이어도의 위치 -----	13
<그림 2> 이어도 해저지형 및 과학기지 설치 지점 -----	14
<그림 3> 이어도 평면도 -----	15
<그림 4> 『韓國의 옛地圖』 (영남대학교박물관) -----	22
<그림 5> 『여지전도(輿地全圖)』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23
<그림 6> 『여지전도(輿地全圖)』 중 일부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24
<그림 7> 하멜표류기 원문에 수록된 하멜일행의 동아시아해역 항해도 -----	25
<그림 8> 기록에 나타난 최부의 표류 및 송환 경로 -----	28
<그림 9> 동아시아 주요 영토분쟁 지역 -----	36
<그림 10> 한중일 해상경계 주장선 -----	40
<그림 11>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45
<그림 12> 위스콘신 빙하기의 최대 빙하 발달시기(LGM)때에 위치한 고해안선 -----	47
<그림 1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치고 있는 중국 어선들 -----	51

## <표 차례>

<표 1> 이어도 학습 목표와 학습요소 -----	82
<표 2>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계획 -----	83
<표 3> 1차시 교수-학습과정안(강의식) -----	84
<표 4> 2차시 교수-학습과정안(논쟁식 토론학습) -----	87
<표 5> 실제 교실에서의 대립토론 Format -----	93
<표 6>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스토리텔링 학습) -----	94
<표 7> 이어도 지리 교수-학습 수행평가 양식 -----	98

# I. 머리말

##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최근 몇 년 사이 이어도에 대한 논쟁과 관심은 예전에 비해 뜨겁다. 지역적 관심사로만 따지면 독도에 버금갈 만큼 관심을 끈다. 하지만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이나 이어도의 지역적 중요성이 큰 것에 비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국제적 분쟁에 대비한 준비 역시 잘 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얼마 전 이어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전국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연수다.<sup>1)</sup> 해양법과 국제법 전문가, 과학기지 건설의 설계 및 공사 담당자, 이어도연구회 소속 연구자들의 강의를 통해 이어도의 실제적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왜 우리는 이어도를 지켜야 하는지 그들의 경험과 연구 성과가 강의에 묻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이어도 관련 내용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후대들에게 특히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도는 현재 한·중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며, 섬이 아니라 평상시에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수중암초이다. 이어도 해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sup>2)</sup>이 서로 겹치는 곳으로 한국과 중국 해안선을 경계로 중간선을 그으면 한국 쪽에 들어와 있지만, 한·중 어업협정 체결 시 이어도 부근 수역은 ‘현재의 조업상태를 유지하는 수역’으로 합의돼 사실상 공해(公海)상에 남게 되었다.<sup>3)</sup>

1) 2013년 7월 31일~8월 4일까지 열린 ‘이어도 해양아카데미’에 연구자는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어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피상적인 지식만 있었는데 연수를 통해 이어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관련된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산재되어 있던 지식들이 한 곳으로 수렴되었다. 3일간은 지상 연수로, 나머지 2일은 제주대학교 해양실습선인 아라호를 타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실제 탐방했다.

2) 영해를 넘어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이다.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해당 수역의 해저·하층도·상부 수역에 있는 자원의 탐사·개발·보존 운동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관행을 거쳐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 인접 또는 대항국간의 경계획정은 먼저 관계국간의 합의에 의해 확정한다.

3) 임재영, ‘유배당한 슬픈 섬 이어도’, ‘정부, 한-중 漁協때 배타적 경제수역서 제외’, 동아일보, 2006.11.13.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영해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sup>4)</sup>

현재 우리나라는 인접국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는 이들과 영토 및 자원과 관련한 분쟁으로 상호 교류의 이면에 그들이 드리워진 모습 역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영유권(領有權, dominium)<sup>5)</sup> 주장에 대한 극복과 이어도와 관련된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이들과의 분쟁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2003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후, 중국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한 단체에서는 이어도를 ‘소암초(蘇岩礁, 쑤엔자오)’라고 명명하고 이어도에 선박을 보내 ‘중국령’이라고 새긴 동패와 석비를 세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1996년부터 14차례에 걸쳐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계속 결렬돼 2008년 11월 이후론 구체적인 회의성과가 아직 없다.<sup>6)</sup>

여전히 중국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에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서해와 남해에서 한·중 간 경계가 분명해지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의 활동무대가 좁아지게 되어 별 이익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5조.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 5) 토지 따위를 차지하여 가질 권리. 대부분의 일본인은 독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에 관련된 비판 등을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6) 홍중기,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한울, 2013.05. 104쪽, “배타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타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수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나 타국의 어로 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선박 항행과 상공비행은 허용된다.”

중국은 또한 동북공정(東北工程)<sup>7)</sup>을 추진하며 주변 국가의 역사를 자국 역사로 흡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이어도 문제 역시도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이어도 해역에 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어도 해역에 존재하고 있는 해저자원에 대한 개발 및 소유에 욕심을 내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한다. 만일 중국이 이어도를 자신들의 관할아래 두고 관리하게 된다면, 중국은 해저 자원뿐만 아니라 막대한 어장 자원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루트를 확보하여 군사적으로 해양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동아시아 주요 길목에 있는 이어도를 확보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전략적 전진기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sup>8)</sup>

또한 이 해역을 장악함으로써 동아시아 물류 유통의 중요한 길목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중국이 군사적 패권과 더불어 해상 물류 루트를 장악하여 경제적 패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다.<sup>9)</sup>

일본 역시도 사회과 교과 영역 다수에서 자국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해 접근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입학 모의시험에도 이 부분을 출제하는 등 점점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단지 일본 국민들 중에서 극우적 성향을 지닌 일부분의 행위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7) 중국사회과학원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가 동북지역 3개 성(省)과 연합하여 동북지역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변강을 안정시키고 민족들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중국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학술연구이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영토와 변경, 주권에 관계되는 정치프로젝트이고,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지만 전국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며, 중국 내부와 더불어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이다. 공개된 과제들의 연구영역을 보면, 중국 강역 이론 연구, 중국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중조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극동지역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가 있었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의 역사, 또는 현재 및 미래의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도 동북공정에 큰 관심을 두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김현기, 『중국 해군력 증강의 의미와 한국안보』, 해병대전략연구소, 2008.12.08.

9) 송성대, 「한중간 이어도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2010, pp.414-429.

최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개최한 2015년 일본 중학교 검정 교과서 관련 학술 회의에서 발표된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관련된 글에서 보면, “일본은 2011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지리교과서 4종(전체 4종), 공민교과서 7종(전체 7종), 역사교과서 1종(전체 7종)에 독도를 기술했었다. 그런데 2015년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지리(전체 4종), 공민(전체 6종), 역사 교과서(전체 8종)에 모두 독도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일본은 독도를 한일 양국의 현안으로 자국 중학생에게 각인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0)</sup>

일본은 정부의 검정 절차를 마친 중학교 역사, 공민, 지리 등 3개 과목 18권의 교과서 중 16권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었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영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그간 영토와 관련된 교육적 활동들이 어떻게 행해져 왔는가를 살펴보다도 그리 충실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영토에 대한, 특히 이어도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한다.

또한 주변국들과 관계에서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피할 수 없다면 올바로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세대들에게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영토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탐구를 통하여 이어도의 정체성을 구명(究明)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한국지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어도 수업 모형을 찾아내어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탐구의 순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어도를 한국지리 수업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

---

10) 김영수, 「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아베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2015년 일본 중학교 검정 교과서 관련 학술회의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15.06.29.

해 영토지리 영역에서 학계의 연구사항(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을 정리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어도에 대한 기초 지식과 과거에서 현재까지 제주인들이 이어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여러 문헌과 참고자료를 동원하여 이어도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할 것이다.

셋째, 이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제주지역 학생들은 이어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한 기본 자료로 제주 시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어도’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하여 이어도 관련 교수-학습 방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현장에 도입하느냐를 결정하고자 한다.

넷째, 최근 동아시아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분쟁들이 있고, 우리와 관련된 분쟁은 무엇인가? 그 중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은 어떤 연유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을 찾아 정리한다.

다섯째, 이어도와 관련하여 현재 발행된 검·인정 한국지리 교과서에 이어도에 대하여 기술된 부분들을 모아 정리하고, 이어도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현재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한국지리 검·인정 교과서는 6종(교학사 2종)이고, 이를 토대로 분석에 들어가 논문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어도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고등학교 한국지리 수업에 적용하려고 한다. 현행 한국지리 수업에서 이어도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이어도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어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어도와 관련된 영토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어도의 정체성 함양을 지리교육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업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 차시별로 설명식, 토론식, 스토리텔링 등의 수업 모형을 작성하여 효과적으



로 현장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지역에서는 지리 교수-학습의 실질적 소재로서 이어도 교육의 지역화 방안 사례로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동료조언법(peer debriefing method)>을 사용하여 제시된 ‘이어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지리 교수-학습 방안’의 교육적 의의(잘된 점), 제시된 방안의 문제점이나 한계(혹은 아쉬운 점), 그리고 대안이나 개선할 점 등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였다.

동료집단의 지속적인 조언은 연구자가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감시기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조언을 통해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정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 역시 동료들의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 동향과 연구 의의

이어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영토교육에 대한 연구와 이어도 자체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영토교육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연구결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영토교육에 대해 이민부(2007)는 ‘독도와 영토교육’이라는 글에서 국토의 최전선에 있는 독도와 마안도<sup>11)</sup>, 마라도 등은 영토교육 혹은 국토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교육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도를 예시로 한 영토교육은 국토의 실질적인 크기와 형태 등의 지리적인 내용은 물론, 역사지리적 타당성, 지정학적 중요성, 해양개발과 진출의 방안 등도 함께 제시하고, 나아가 국토애(國土愛)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인 국가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한 국가의 힘, 즉

---

11)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읍에 속하는 섬으로 동경 124°11'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의 극서(極西)를 이룬다. 면적은 0.3km<sup>2</sup>, 해안선길이 2.3km, 최고높이 75m이며, 섬의 모양은 남북으로 약간 긴 타원형이다. 신도(薪島) 서쪽 1.2km 지점에 있으며, 압록강 하구에서 서남쪽으로 14.5km 가량 떨어져 있고, 신도 주변 간석지 안에 있는 부속 섬으로 압록강 하구 삼각주(三角洲) 섬이다. 마안도라는 지명은 섬의 모양이 말안장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는 데서 만들어졌다.

국력은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등과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학문력, 문화력, 그리고 교육력과 같은 보다 조용한 힘들을 포함한 다양한 힘들의 합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영토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당연히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과거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해외 영토를 탈취하고 그 영토의 식민지 경영을 위해 세계 지리지와 세계지도 작성에 매진했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교육하였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sup>12)</sup>

이 주장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영토교육이 우리 국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교육적으로 지키는 방안의 하나로 영토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지리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새롭게 개정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 영역에서 영토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해야 하겠지만, 특히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 사회과 과목 모두에서는 영토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서태열(2007)은 ‘영토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영토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국가 영역의 한부분이며(국가영역으로 영토), 개인이나 집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기도 하며(생활공간으로 영토), 개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전개되는 실존적 공간(실존적 공간으로 영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토교육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첫째, 영토교육은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적,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영토교육은 국가정체성, 지역정체성, 영역적 정체성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집단이나 개인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생활공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공간적인 차원의 것인데, 장소에 대한 소속감, 입지감, 영역감 등을 토대로 하는 장소감(sense of place)을 키워주는 것과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다. 셋째, 보편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민정신을 길러주는 것이다.<sup>13)</sup>

12) 이민부, 『독도와 영토교육』, 2007.03. (<http://cafe.naver.com/noblessebrain/50>)



남호엽(2011)은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영토의 문제는 지정학의 전형적인 탐구대상이다. 글로벌 시대에 와서 국가 중심의 고전 지정학 비전은 초국가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 상대화되고 있다. 영토는 영역화의 운동 양상을 반영하며, 지정학 비전의 재현물로서 개별 주체들에게 각인된다. 영토교육은 정교하게 조직화된 지정학 비전의 상황이며, 일종의 공간 전략 혹은 지리적인 실행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물론 오늘날처럼 세계화가 진행되어 민족국가 단위의 근대적 국가 개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영토교육은 특정한 관계 설정과 의미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토교육은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 구성의 중요 요인이며, 국가 주체 형성에 있어서 중요 논리를 제공한다.<sup>14)</sup>

이어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먼저 송성대(2010)는 ‘한·중 간 이어도海 領有權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에서 동중국해의 이어도 해역의 영토적 분쟁 실체를 제시하고, 그 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지리학적 패러다임에 의해 밝히면서 향후 한·중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논의 시 한국정부의 논리를 재정비하고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이어도 분쟁의 실상을 이해하도록 하여 이어도에 대한 집단지성(集團知性)의 확장에 기여했다. 특히 영토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지리학계에서 아직도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본인의 연구를 통하여 지리학도들이 이어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sup>15)</sup>

김희열(2013)은 중국의 패권을 억제시킬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실효적 지배 전략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이웃들과 힘겨운 해양 분쟁을 겪고 있으나 독도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

13) 서태열, 「영토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7.10, pp.151-154.

14) 남호엽,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2011.12, pp.371-379.

15) 송성대, 「한·중 간 이어도海 領有權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2010, pp.414-429.

면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제도를 실효적으로 점령하거나 점령하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이어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에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확정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대륙붕 자연연장설에 의거해 동중국해에서의 패권주의를 고수하겠지만 중국은 이미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어도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국제법적 증거확보와 더욱 더 실효적 지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확정 촉구를 하지 않으면 남중국해 분쟁사태처럼 중국의 패권주의에 한국 또는 미국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쟁에 대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sup>16)</sup>

최병학(2013)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를 항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조건과 방법이 필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는 그 자체로 유지되거나 지켜질 수 없으며, 주변과의 관련 속에서 능동적으로 존재양식을 확보할 수 있을 때만이 실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도는 이제 단순한 수중암초가 아니며, 해양영토를 확보하려는 한국·중국·일본 3국이 각축하는 현실의 섬이 되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분쟁에 준비하자는 주장이 일반적이거나, 한편에서는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평화체제의 지속적 유지라는 대전제 하에 대화와 타협, 양보의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7)</sup>

김현수·양희철(2013)은 ‘한반도 주변수역 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국 자신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관할수역의 지나친 확장경쟁의식을 배제하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충돌이 되고 있는 해양에 관한 문제를 분쟁의 강제적 수단(사법적 해결)에 의해 그 해결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한·중 양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외교 정책의 다

16) 김희열,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패권주의」, 『이어도연구』, 이어도연구회, 2013, pp.170-191.

17) 최병학,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이어도연구』, 이어도연구회, 2013, pp.131-169.

변성 및 민족 정서의 다양성 등으로 해양문제 해결에 있어 선천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제도에 의한 해결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협상의 실현노력, 외교관계의 개선 및 관련 지역기구 등의 활용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어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sup>18)</sup>

근래 들어 주변국과의 영토와 관련된 마찰이 논리적 대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력 행사에 이르는 상황이 자주 전개되는 것을 볼 때, 그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로서의 이론적 배경은 주변국들보다 월등한 국력을 갖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성을 가지는 접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이에 비하면 독도와 관련된 전 국민적 관심은 정부, 학계, 일반 국민,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독도 지키기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정도로 높다. 반크(VANK)<sup>19)</sup>와 같은 NGO단체들이 인터넷상에서 펼치는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은 생각 이상이다.

제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어도의 문제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우리와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어도를 둘러싼 양국의 다툼에 많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우리 제주에서도 그 관심은 생각 이하로 초라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기고 대다수 주민들은 별 관심 없이 쳐다만 보기에선 사안의 심각성이 크게 보인다.

그러므로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더라도 이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부단히 계발해야 하며,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국제 관계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눈앞의 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끝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8) 김현수·양희철, 「한반도 주변수역 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이어도연구』, 이어도연구회, 2013, pp.99-123.

19)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약자로, 반크의 홈페이지에서는 반크를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바르게 알리고, 외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친구맺기를 주선하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999년 출발하여, 한국에 대한 자료가 '왜곡'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특히 영어로 된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를 '동해(East Sea)'로 고쳐 달라거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대하는 '고구려 바로 알리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일반 대중에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위키백과)

중국에 맞서 우리는 이어도가 우리 관할권에 놓여 있으며 그 관리 주체가 우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 교과와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기네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안선의 길이나 자국 영역에서의 조업인구, Silt<sup>20)</sup>의 발원지 등으로 볼 때 중국의 해역이란 주장이다. 오늘날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해양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해양에 대한 국가 관할권(管轄權)<sup>21)</sup>의 확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섬의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權原)<sup>22)</sup>과 경계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명확한 우리의 주장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주장의 근거는 우리 측에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마련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과거처럼 맹목적인 애국심에 기대는 국가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법적·역사적·과학적 근거를 가진 논리를 통하여 명료하게 우리의 주장을 국제 사회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에 존재하는 국가적·사회적 문제에 언제든지 접근하여 역사적, 정치적, 법적, 경제적, 지리적 등 모든 분야의 문제에 접하여 탐구하고 분석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찾고자 하는 사회 탐구 교과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교과를 중심으로 한 사회교과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앞으로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는 주변국들과의 영토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지리교과에서 이 문제를 인접국가의 지리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나라 국토의 소중함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토관을 갖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

20) 실트(silt)란 미사(微砂)로 모래(sand)보다 작지만 점토(clay)보다는 입자가 굵은 세립 입자의 침적토를 말한다. 입도 범위는 1/16-1/256mm 사이이다.

21)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나 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22) 어떤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이에 이 연구는 국민들이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어도 문제에 대한 분쟁의 본질을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영토와 관련된 교육은 교과서와 다른 매체들을 통해 중요하게 여겨 왔으며, 그중 지리교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영토분쟁과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리 교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 역시도 학교에서 영토교육을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리교과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교과서의 국토 단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교과서를 통해 우리 영토와 국토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보편적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리적 인접국가의 영토와 국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제공은 아직도 불충분해 보인다.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과 교육 현장에서의 영토 교육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어도와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는 불충분하여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이어도 자체와 관련된 자료들은 하나 둘씩 이어도 연구회<sup>23)</sup>를 중심으로 하여 과거에 비해 왕성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생각만큼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교육 현장에 발을 담고 있는 연구자가 이어도와 관련된 논쟁점들을 분석·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가 교육과정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어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 이어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에 대처한 대응 논리를 제시하면서 진실 알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후에 제주에서의 향토지리 교육은 물론이고, 이어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교사에게 이어도의 정체성과 역사성, 이어도 교육 자료와 수업모형을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3) '해양영토 지키미'로 불리는 '사단법인 이어도 연구회(SOCIETY OF IEODO RESEARCH)'를 일컫는 것으로 2007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 II.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과 정체성

### 1. 이어도의 지리적 기초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동중국해와 서해의 남단이 교차하는 북위 32° 07' 22.63" 동경 125° 10' 56.81" 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적 관례에 따라 제주도의 유인 부속 도서인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80해리), 일본의 조도(鳥島, 도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km(149해리),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유인 부속도서인 서산다오(余山島)에서 287km(155해리)의 거리를 두고 있다(그림 1).<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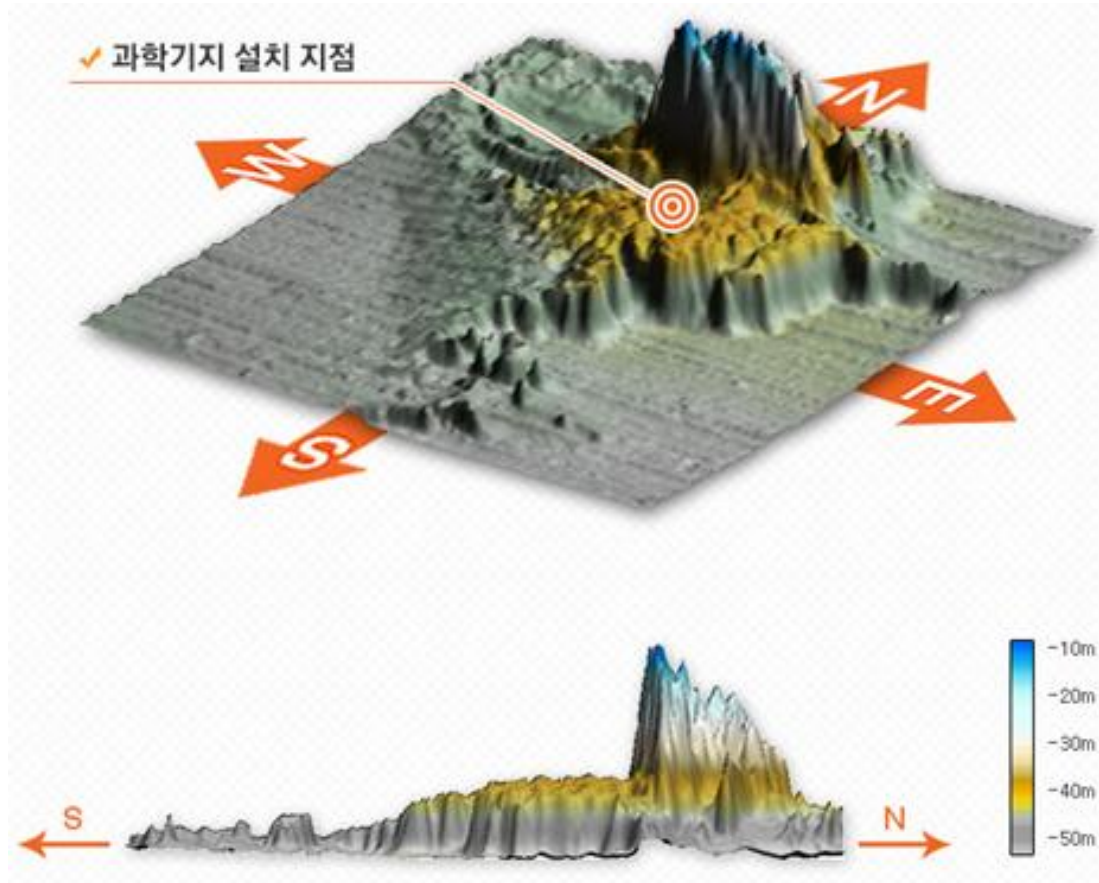


<그림 1> 이어도 위치 (지도 재구성)

24) 두산백과



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다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이어도는 바다 밑 4.6m에 있는 수중암초로 분류되고 있고 가장 얇은 곳은 해수면 아래로 정상수심 4.6m, 주변 해역 평균 수심이 50m에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에 이르는 공해상의 암초이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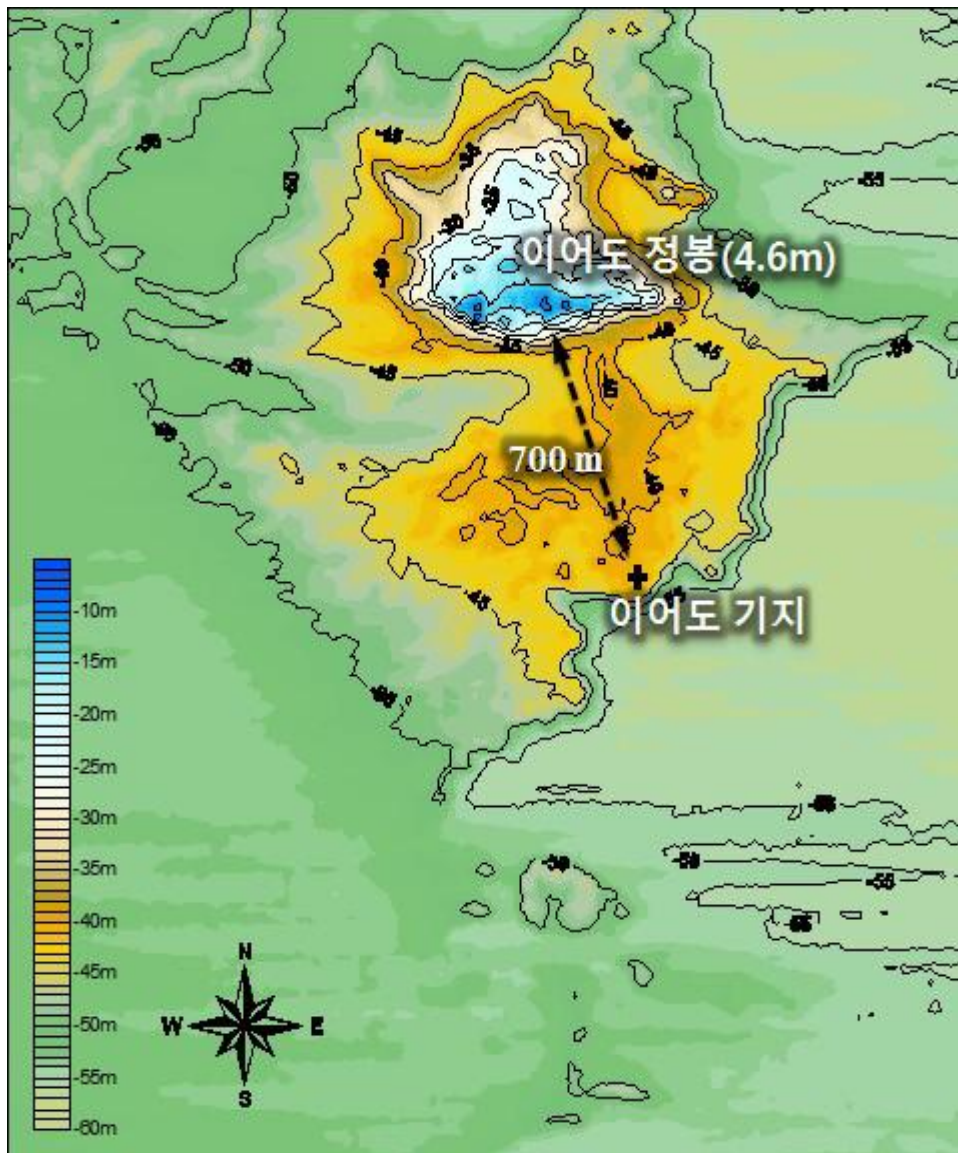
<그림 2> 이어도 해저지형 및 과학기지 설치 지점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상부를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며 서쪽과 북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어도 일대는 약 1만1000년 전인 빙하기(glacial age)에는 제주도와의 연결된 육지였는데, 현재의 간빙기(interglacial age)가 되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해 해저 대륙붕이 되었다.<sup>26)</sup>

25) (사)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 도서출판 선인, 2011, 170쪽.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른다.”

26) 위스콘신 빙하기의 최대 빙하 발달시기(LGM)때에 위치한 고해안선(paleocoastline). <그림 12> 참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어도 주변은 굴곡이 매우 심하고 복잡한 해저지형으로 구성됐다. 지질학상으로 이들은 화산부스러기가 운반·퇴적된 응회암층이 이미 존재하던 퇴적층을 덮은 후 풍화침식 후 남은 잔류지형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화산활동으로 인한 응회구 내지 응회환으로 생겨난 이어도의 해저 지형은 뚜렷한 구성 암상 차이에 따른 차별 침식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국부적인 봉우리 형태만 남기고 분화구의 부분이 파도에 의해 침식된 파식대 형태의 지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sup>27)</sup>



<그림 3> 이어도 평면도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7) 정대교·심재설, 『이어도(스코트라암초)의 생성과 진화』, 『지질학회지』, 제37권4호, 2001, p.537.



우리나라에서 이어도에 대한 현장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51년이다.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탐사작업을 실시하여 높은 파도 속에서 실체를 드러내는 이어도를 발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 파랑도”라고 새긴 동판을 그곳에 내려 놓았다. 그리고 1952년 1월 18일에는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의거해 독도와 이어도가 우리 영토에 포함되도록 하는 평화선(Peace Line, Syngman Rhee Line)<sup>28)</sup>을 세계에 공표하게 된다.<sup>29)</sup>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는 잘 알려진 대로 1984년 제주대학교-KBS 파랑도 학술탐사팀에 의해서 정확히 확인되었고, 1986년에는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의 전신인 수로국의 조사에 의해 수심이 4.6m인 암초로 측정되었다. 이어도에 설치된 최초의 인공 구조물은 1987년 한국 해운항만청이 설치한 항해용 등부표로 이를 국제적으로 공표했고, 한국지질원은 2001년 1월 26일 이 암초를 ‘이어도’라고 공식 명명하였고, 이어도에 있는 무인 종합 해양과학기지는 한국해양연구원이 기상관측과 해양자원 연구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212억 원을 투입해 2003년 6월 완공했다.<sup>30)</sup>

총 면적은 400여 평, 총 높이는 수중 암반으로부터 76m(수상 36m)다. 이곳에서 한국해양연구원 직원들이 2~3개월에 한 번씩 1주일 정도 머물면서 관측장비 점검 작업을 벌인다. 기지에는 최첨단 기상관측장비 13종, 해상관측장비 20종, 환경관측장비 6종, 구조물 안정성 계측장비 4종 등을 설치했다. 이곳에서 관측된 각종 자료는 무궁화위성을 통해 안산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과 기상청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sup>31)</sup>

해양과학기지는 헬기이착륙장, 첨단관측장비, 등대, 풍력발전용풍차, 안테나 등을 갖춘 표면적 255평, 해수면 위 15층 높이의 기지가 완성되어 많은 나라들로부터

28) 김명기, 『독도 강의』, 책과 사람들, 2007, 137쪽.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에 의해 설정된 해역으로 일본과 어업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어업자원 및 대륙붕자원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 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언한 해양주권선으로,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한다.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어업기술이 월등한 일본과의 어업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세력의 연안침투방지는 물론, 세계 각국의 영해확장과 주권적 전관화(主權的專管化)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서 선언되었다.

29) 송성대,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 『이어도 연구』 제4권, 2013. p.59.

30)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31) 김성호, “중국 탐내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가치 조명한다”, 녹색성장해양포럼 ‘한국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 학술대회, 인터넷뉴스 신문고, 2012.04.15.

터 관심을 끌게 되었다.<sup>32)</sup>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광구 중 제4 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하다.<sup>33)</sup>

이 기지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제주도의 마라도에서 더 가까우며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전초기지로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 기지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데, 한반도로 들어오는 태풍의 70%가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풍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바다 속 유해물질도 미리 두 달 전에 살필 수 있다. 또한 이곳 이어도 해역은 다양한 어종이 넘쳐나는 황금어장이 조성되어 있고, 중국, 동남아, 유럽으로 가는 바닷길과 하늘길이 지나는 길목이다. 그 만큼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해역이다.<sup>34)</sup>

이러한 것을 종합할 때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 않는 수중 암초로 단순하게 여겨지지만 군사적·과학적·자원적인 면 등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 2. 이어도 지명의 중요성

오랜 세월 제주인의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서도 그동안 실체를 보여주지 않았던 이어도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도가 처음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고종 5년(1868)의 일이다. 그 후 1900년 6월 5일 영국상선 Socotra호가 암초에 스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1901년에 영국해군이 암초를 확인하고 측량하여 ‘Socotra Rock’이라 해도에 표기하였다. 그리고 10년 뒤인 1910년 영국 해군 수로국의 명령에 의해 영국 해군 측량선인 워터위치(HMS Waterwitch)호가 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에 성공하면서, 이어도가 수심 5.4미터에 자리 잡고 있는 암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선박의 이름을 따서 국제적으로는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라 불린다.<sup>35)</sup>

32) 현경병·박용관·고충석,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 셋별 D&P, 2010, pp.107-113.

33) 박준희,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대양해군 꿈꾸는 중, ‘이어도’ 트집 잡아 분쟁지역화, 서울신문, 2012.03.17.

34) 권은영,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실효적 지배 증거’, TV조선, 2014.01.04.

영국 해군 수로국이 소코트라 암초를 측량하고 수로지와 해도에 기재한 이유는 선박항행에 위험한 암초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암초의 존재를 일본을 비롯한 각국 수로국에 통보하였고, 동중국해상을 왕래하는 선박들은 해도를 통해 이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물론 제주도 어부들은 이어도의 존재를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측량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때가 처음이다. 영국 다음으로 동중국해역을 지배한 일본 역시 자신들의 민간 선박과 함대의 안전을 위해 해도에 암초를 기재하고 이를 피해서 다니도록 했다. 그러다가 1937년부터 일본과 중국을 잇는 해저전선을 부설하게 되자 소코트라 암초의 존재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위에 중계기지를 건설하고, 하나의 섬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sup>35)</sup>

이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에 인공구조물인 인공섬 건립을 가장 먼저 계획했던 나라는 동아시아 3국에서도 일본이었다. 1938년 일본은 나가사키-고토(五島)<sup>37)</sup>-제주도-소코트라 암초[波浪ス]-화조산도-상해를 연결하는 920km의 해저케이블 수립을 계획했었으나 태평양전쟁으로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sup>38)</sup>

오늘날 이어도는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며 관심이 예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이어도가 실재하는 섬인지, 아니면 관념 속에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전설 속의 이름뿐인 섬인지 하는 논쟁이 주를 이룬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중 간에 벌어지는 관할권 분쟁이 그 중심에 있고, 이 논쟁과 분쟁의 또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이어도에 관한 지명이다. 왜냐하면 지명의 위상 여하에 따라 이어도 해역에 대한 국제법적·문화적으로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어도라는 해역 혹은 암초에 어느 나라가 먼저 인지하여 이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영토선점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며, 또한 국제적인 지명 표준화 과정에서도 해당 국가가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관할권 주장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sup>39)</sup>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저지명위원회(SCUFN)의 해저지명의 국제표준화

35) 조성윤,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 『이어도 연구』 제4권, 은누리디엔피, 2013. pp.7-37.

36) 조성윤, 상계논문, pp.7-37.

37) 장기현(長崎縣 ながさきけん) 남부, ‘五島列島(ごとうれつとう)’의 준말.

38) 김동진, 「이어도와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역사학적 인식-동아시아 해역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한국학연구』 제32집, 2014, pp.533-560.

39) 송성대,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 『이어도 연구』 제4권, 2013. p.59.

원칙에는 다음과 같이 천명되어 있다. 지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개인 및 관계 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두 개의 명칭이 동일한 지형에 적용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오래 사용된 명칭이 채택되어야 한다.<sup>40)</sup>

이는 우리가 이어도라는 명칭이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름가지고 다 투느냐고, 서로 적당히 타협해서 지으면 된다고, 국제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분쟁국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한 번 썩은 더 생각해야만 할 내용이다.

국제수로기구의 원칙에 분쟁 대상국들이 충실히 따르기로 한다면, 결국 채택된 명칭에 따라서 분쟁 대상의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sup>41)</sup>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이고, 이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어졌으며, 그 구성원들이 이 존재를 언제부터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도에 대하여 조금만 더 고찰해보자.

이어도라는 이름은 바다 밑 어딘가에 있다는 제주도민의 구전된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파랑도(波浪島)’라는 이름은 이어도 부근 수면에서는 항상 뚜렷한 파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부들이 부른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어도는 ‘이여도’와 같이 쓰이고 있고, 최근 이어도 해양과학과학기지의 작명과 관련된 논의들 속에서 이제는 거의 이어도로 명칭이 굳어져 있다.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에 ‘백해(白海)’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이어도를 지날 때 파도가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며 하얀 포말을 날렸던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sup>42)</sup>

중국이 지명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자신들의 영토가 이득을 보는가 손해를 보

40) 성효현, 「해저지명의 국제표준화와 한국의 해저지명」, 『지리학과 언어학에서 본 지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및 한국지명학회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한국지명학회, 2009, p.111.

41) 송성대, 『두 개의 얼굴, 이어도』, 이어도연구회, 도서출판 각, 2015, p.15.

42) 조선 성종 19년, 1488년에 최부(崔溥)가 지은 기행문. 표해록 중에선 가장 유명하며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세계 3대 중국 기행문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총 3권 2책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최부가 제주도 추쇄경차관으로 부임하였다가 부친상을 당하자 수행원 42명과 함께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던 중 갑작스레 태풍을 만나 14일간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중국 저장성 임해현(臨海縣) 우두외양(牛頭外洋)에 상륙하여 조선으로 돌아온 내용이다. (나무위키)

는가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진행시키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매우 더디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지명관리를 위한 관리를 보면, 중국 정부는 지명관리를 위해 방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나라 건설을 위해 지명관리 목표를 ‘국가지명표준화’와 ‘국내외지명 역사규범화(譯寫規範化)’로 정했다. 이에 따른 지명 명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나라통일, 주권과 영토완정(完整)에 유리해야 하며, (2) 현지 인문지리 또는 자연지리 특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3) 규범에 맞는 한자 혹은 소수민족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4) 외국인명, 지명으로 국내지명을 명명하지 못한다.<sup>43)</sup>

실제 중국은 개방정책 이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게 도사리고 있는 국경 지방의 지명뿐만 아니라, 이름의 변경이나 개명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적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는 있다. 2002년 7월 1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국가지명위원회’가 만들어져 ‘국제수로기(IHO)’의 권고사항인 해양지명기관을 설립했다.<sup>44)</sup>

이번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것에 우리의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영토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후대가 세계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에서 살고 있는 제주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한들 큰 효과는 가져올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다.

---

43) 송성대, 전계서, p.13.

44) 국가지명위원회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민간위원 18인과 공무원위원 11인 등 총 2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제주 사람들의 이어도 인식

제주 사람들의 이어도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제주 사람들이 이어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전해져 내려오는 제주의 대표적인 구전 민요로 ‘이어도 사나’가 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로지만 민요에는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지방의 그들만의 삶의 역사가 내재되어 있다.

흔히 ‘이어도 사나’라는 민요는 거친 제주 바다에서 물질하며 힘든 노동에 따르는 삶을 영위해오던 제주 해녀들의 노동요라고 한다.<sup>45)</sup> 혹은 파도를 헤치며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제주의 뱃 사나이(해민, 보재기)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귀향을 염원하는 노래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이어도 사나’는 단순하게 귀향에 대한 바람과 불가능함에 체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단순하게 서글픈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는 아니라고 한다.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또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의 삶에서 이어도를 빼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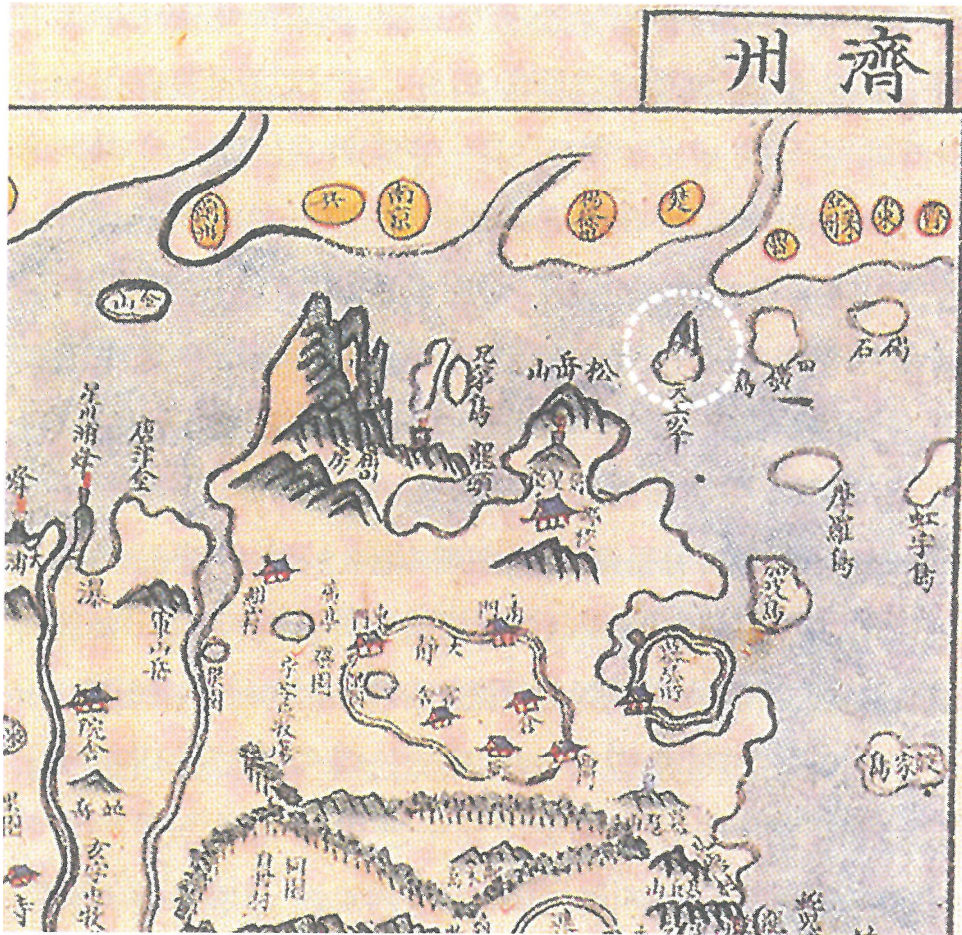
사실 제주 사람들이 이어도를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어도와 관련된 내용들 대부분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기를 특정하여 검증하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의 존재하는 기록들을 통하여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인문학의 영역, 그 중에서도 인문지리의 영역이나 문화인류학의 영역에서는 추론을 통한 결론 도출이 주요 탐구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연구에 도움을 크게 주는 것이 있다면 과거의 기록들이다.

조선 시대에 제작된 자료 중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어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韓國의 옛地圖』에 나타나 있는 제주 송악산 남서쪽에 존재하는 천왕봉(天王峯)에 대한 기록이다. 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 돌섬 모양의 천왕봉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어도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그림4 참조).

45) 좌혜경 외, 『제주민요채록집 제주민요사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15, 하나CNC출판, 2015.09. p.15.  
“노동요는 노동기능에 의해 불려지는 것을 말하는데, 농사 관행에 따른 것을 농업요, 어부나 해녀들의 작업에서 불려지는 것을 어업요, 관모공예시 불려지는 관망요와 기타의 노래들이 있다.”





<그림 4> 『韓國의 옛地圖』 (영남대학교박물관)

천왕봉이 이어도 해역에 속해 있으면서 산방산 앞의 형제도(兄弟島)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섬과도 다르다. 형태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어도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천왕봉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확실치 않다.<sup>46)</sup>

다른 크고 작은 섬들은 모두 평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해 유독 천왕봉은 뾰족한 봉우리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 섬에 대하여 여타의 섬들과는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 아래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여지전도(輿地全圖)』이다(그림5 참조).

46) 오상학, 「한중일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 인식」, 『국토지리학회지』,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 제45권 제1호, 2011.3, p.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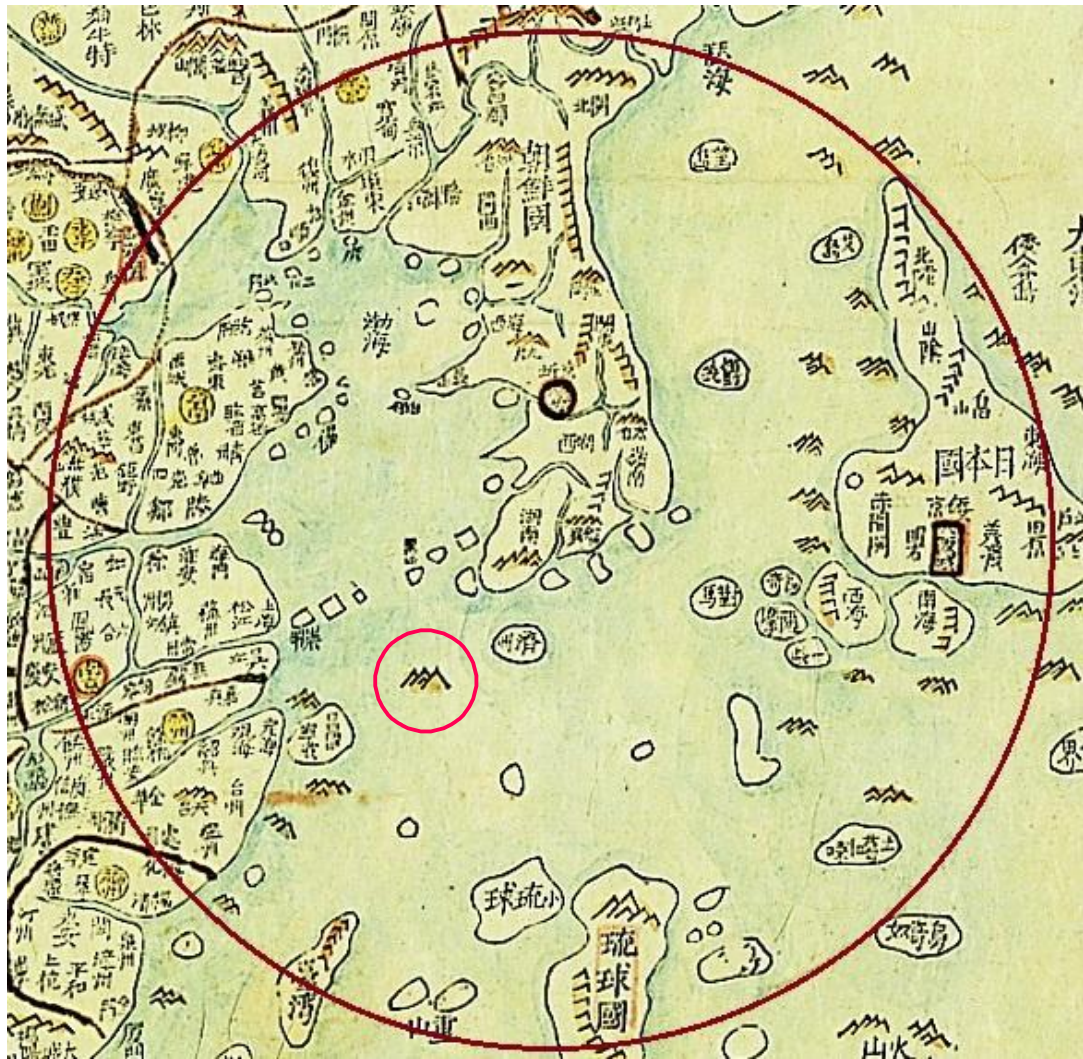




<그림 5> 『여지전도(輿地全圖)』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앞의 『韓國의 옛地圖』의 천왕봉의 등장보다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6 참조).





<그림 6> 『여지전도(輿地全圖)』 중 일부분(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제주와 중국의 Ningbo 사이에 암초표시(작은 원형)가 그려져 있다. 이 이어도 해역에 다른 섬이나 암초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네 봉우리를 표시하고 있는 이 이름없는 섬이 이어도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지전도』의 이어도 해역을 보면 제주도, 유구국이 그려져 있고, 양쯔강 하구의 승명도, 중국의 영파(寧波, Ningbo)가 섬으로 그려져 있다. 지금의 황해를 발해(渤海), 동해의 북쪽을 슬해(瑟海)라고 표기했다. 유구국의 동쪽에는 소유구가 그려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만을 소유구로 불러왔으나 여기서는 다른 섬으로 그려져 있다. 지금 대만 남쪽에 있는 소유구(小琉球, 리우치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지도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이어도 해역, 즉 제주와 중국 영파 사이에 있는 바다에 암초와 같은 섬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

이 지금의 이어도를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해역에 다른 섬이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어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한국의 고지도 중에서 이어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사례는 『여지전도』가 대표적이라 생각한다.<sup>47)</sup>



<그림 7> 하멜표류기 원문에 수록된 하멜일행의 동아시아해역 항해도(출처: 이어도 바로알기, p.46)

47) 오상학, 전계논문, p.79.

더불어 하멜표류기 원본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항로(그림7 참조)를 볼 때 이어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라도와 형제도를 사이로 바다를 향해 나가다가 이어도를 만나게 된다. 『韓國의 옛地圖』에서도 이 두 섬 사이에 뾰족한 섬 이어도가 중국과 만나는 절반의 지점에 표시되어 있다.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민요, 하멜표류기의 지도상의 표기, 『韓國의 옛地圖』 및 『여지전도(輿地全圖)』에 표기된 위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고 있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를 보면 설득력이 더해진다. 조선 전기의 기록인 최부의 『표해록』(1488년, 성종 19년)과 이형상의 기록 등이다.

이를 보면 이미 예전부터 제주 사람들은 이어도의 존재를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외지(外地)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들이 제공한 정보가 맞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그 기록들을 보자.

(가) 제주 서남쪽에 백해(白海)가 있다는 말도 흥미롭다. 물결은 용솟음치고 바다 빛은 희다. 예전에 정의 현감 채윤혜(蔡允惠)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제주 노인들이 말하기를, 맑게 갠 날 한라산 꼭대기에 오르면 멀리 서남쪽으로 아득히 떨어진 바다 밖에 백사장 같은 것이 보입니다.” (최부, 『표해록』 제1권, 1488, 윤정월 7일)

(나) “내가 표류하여서 백해(白海)로 들어가 서북풍을 만나 남하 하였을 때 산 모양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최부, 『표해록』 제3권 무신년, 3월 29일)

(다) 서쪽 하늘 닿는 끝을 바라보니 백색 사정(沙汀 : 물가 모래밭) 같은 것이 있는데, 곧 『표해록』에 백해라고 칭한 곳이다. (이형상, 『남환박물』, 1704)

이상의 인용문 (가)~(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이어도 해역은 ‘白海’라는 바다로 불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서남쪽으로 보이는 백해라는 바다는 지금의 이어도 해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백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은 백사장

처럼 보여서일 수도 있지만 이어도 해역에 파도가 빈번하게 치면서 나오는 하얀 포말과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단정어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의 이어도 해상 왕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sup>48)</sup>

(나)의 『표해록』에 ‘산 모양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기상이나 해황(바다 수면의 높낮이)에 따라 이어도가 섬으로 그리고 때로는 암초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sup>49)</sup>

이는 과거에 존재하는 기록들이 사실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용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수백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자연현상과 관련된 상상은 서로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파도가 세차게 치는 날 망망대해 속에서 하얗게 포말로 부서지는 하얀 바다(白海)가 나타난다는 것에 실로 경이로움이 일었을 것이고, 더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났을 것이다. 결국 옛날 사람들은 이 백해라는 것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시문선집인 『동문선(東文選)』의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을 비롯한 구전기록들은 탐라국 건국 시조의 배필인 세 공주가 이어도, 벌랑, 벽랑국에서 온 것으로 돼있다. 벽랑국 또는 벌랑은 파도치는 땅, 파도가 높은 지역을 일컫는다. 세 공주가 이어도 해역을 향해했을 것으로 신화는 말하고 있다. 이어도에 얽힌 신화와 전설, 민요 등을 보면 이미 제주인들은 이어도가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sup>50)</sup>

근래에 발간된 책자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들이 선명히 제시되고 있다. 다음 주장들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를 누볐던 제주해민들이 만들어 놓은 항로 중에 하나가 ‘이어도 항로(송성대, 탐라와 중국의 Ningbo(영파, 寧波)를 잇는 항로)’가 있다. 이어도는 바로 이 어도항로의 중간에 존재하는 간출암 형태로 존재하는 암초이다.<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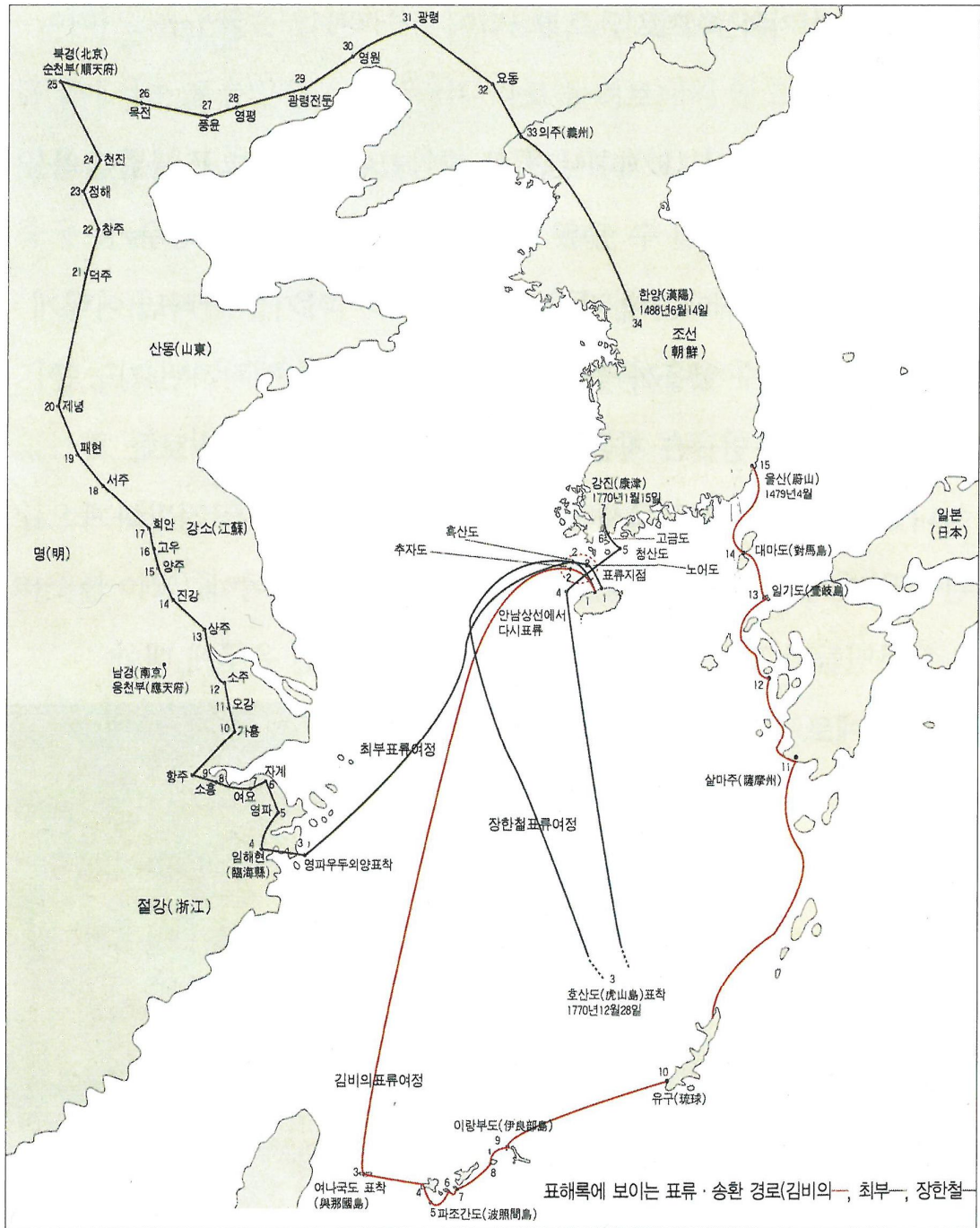
48) 오상학, 전계논문, p.82.

49) 송성대, 『두 개의 얼굴, 이어도』, 이어도연구회, 도서출판 각, 2015, p.49.

50) 주미령, [이어도를 어떻게 전설의 섬 ‘이어도토피아’가 해양영토 전초기지로, 국민일보, 2011.12.08.

51) 송성대, 『두 개의 얼굴, 이어도』, 이어도연구회, 도서출판 각, 2015, 47쪽. “간출암은 해중암초의 정체(正體)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용어로 그 뜻은 밀물 때의 수위가 오르면 물에 잠기고,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섬의 형태로 나타나는 두 얼굴의 수중 암초를 말한다.”





<그림 8> 기록에 나타난 최부의 표류 및 송환 경로 (출처: 김성미, 『동방의 마르코 폴로 최부』, p.129)

‘제주 바다’ ‘제주 먼바다’로 통칭되는 동아시아중해역 안에 이어도가 존재했다는 것을 제주도민들은 오랜 역사적 체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 역사서와 고문헌들은 이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의 강력한 근거로 중국의 원사

(元史), 제주민요, 하멜표류기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료의 기록을 보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해로(海路)는 제주섬을 기점으로 제주도민에 의해 개척되었고 이를 주변 국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sup>52)</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누군가 말하기를 탐라의 바닷길로 가면 남송과 일본에 쉽게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중략) 고려에 사람을 직접 보내서 탐라의 바닷길이 일본 등지로 열려 있다는 게 확실한지를 알아보게 했다.”(『元史』 중)

(나)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도이어라 이어도이어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이어라)  
이어 허맨 나 눈물 난다 (이어하면 나 눈물난다)  
이어 말은 마랑근 가라 (이어란 말은 하지말고 가라)  
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 (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엥 해라 (이어도가 반쑤이라고 하더라)”  
(제주민요인 땃돌노래, 방애노래 중)

(다) “8월 1일 새벽에 우리는 조그마한 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섬 뒤편에 닻을 내릴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닻을 내리는 데 성공했다. 그 섬 바로 뒤편에 큰 암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닻을 내린 상태로 있어야만 했으며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졌다.”(『하멜표류기』 중)

이어도 연구회는 “이어도는 남방으로 가던 바닷길 중간쯤에 있다는 제주 사람들의 노래, 뱃사람들의 노동요, 해녀들의 노동요에 단골로 나오던 명사요, 후렴구였다”면서 “해녀들의 노래가 이어도를 우리나라 섬으로, 암초로 확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에서 가사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지명들(강남, 해남)은 제주 사람들의 경험치가 담겨있는 것으로 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중국과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제주인들로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주 접

52)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 도서출판 선인, 2011.11.

할 수밖에 없었던 바다의 상황을 잘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상황의 전달을 구전(口傳)으로 했다고 여겨진다.

전설에서는 이어도를 보면 더 이상 이승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이 말은 이어도 해역 근처까지 와서 조업을 하다 물살이 거칠어져 파고가 높아지면 물속에 숨어 있던 이 암초가 보였을 것이고, 이 정도의 거친 파도라면 당시에 제작된 조그만 선박 정도는 쉽게 삼켜버렸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바다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중 어찌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얘기가 구전되어 내려왔다.

제주는 바람과 돌이 많아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타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노동의 양이 많아야 했고, 특히 파도가 거친 바다에서의 삶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다.

이러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야 했고, 현실에서 주어지는 지긋지긋한 고통과는 거리가 먼, 굶주림이 사라지는 저 자유와 평화와 평등의 땅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제주 민요 속에는 이어도에 대한 애증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써 제주 사람에게 이어도는 현실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정신적 영역의 세계로 다가오게 된다. 이어도가 없이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고, 숨겨진 삶의 이면을 파악할 수 없다.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제주 사람들의 삶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어도에 대한 접근이 감상적 상태로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도연구회도 마찬가지로 이를 언급한다.

연구회는 “이어도에 대한 이해는 어떤 한 학문 영역만으로는 불완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어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설·신화, 문학으로부터 해양 생태, 자원, 해양과하기지의 건설·운영 등을 망라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적 측면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up>53)</sup>

53)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 도서출판 선인, 2011.11.

#### 4. 이어도에 대한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인식

‘이어도’에 대해 우리 제주에서는 실제 어떤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마침 이어도연구소에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기에, 연구자는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201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이어도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sup>54)</sup> 설문에 응답한 395명 중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여 통계에 포함할 수 없는 61명을 제외한 334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집계하고 정리하였다. 설문 구성은 이어도 일반, 이어도 영토, 이어도 교육, 응답자 신상 등 4개 영역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설문 내용은 부록 참조).

결과분석표에서 구분은 각 설문 문항의 선택지들을 배치하였고, 빈도는 실제 응답자수, 비율은 전체 응답자수에서 개별선택지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었다. 비율에서의 수치는 소수점 두 자릿수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입력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어도에 대한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인식 실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어도 일반> 설문문항에서 ① 응답자들의 이어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냐에 대한 응답은 ‘들어본 적이 있다’가 231명(69.2%), ‘들어본 적이 없다’가 103명(30.8%)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중순에 진행되었던 이어도연구회의 도내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다’가 84.1%, ‘들어본 경험이 없다’가 15.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떨어진다고 보인다.<sup>55)</sup> 이전에 비해 각종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되고,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도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 1학년

54) 강병철·양금희·권순철, 『이어도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 14, 2015.10.

55) 강병철·양금희·권순철, 상계서. pp.55-56.



이라고는 하지만 이어도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② 응답자들의 이어도 실재 여부에 대한 응답은 ‘실재 한다’가 249명(74.6%), ‘실재하지 않는다’가 85명(25.4%)로 나타나 이어도를 실존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③ 응답자들의 ‘이어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응답은 ‘제주인의 이상향’ 32명(9.6%), ‘해양과학기지’ 36명(10.8%), ‘해양영토’ 31명(9.3%), ‘전설속의 섬’ 51명(15.3%), ‘수중암초’ 20명(6.0%), ‘영유권 분쟁 지역’ 58명(17.4%), ‘없다’ 106명(31.7%)로 나타났다.

④ 응답자들의 ‘이어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응답은 ‘이어도 관련 민요’ 109명(32.6%), ‘이어도 관련 전설’ 22명(6.6%), ‘이어도 관련 소설’ 7명(2.1%), ‘이어도 관련 시’ 1명(0.3%), ‘이어도 관련 신문이나 방송’ 56명(16.8%), ‘학교 수업 내용’ 38명(11.4%), ‘부모님 등 구전으로’ 19명(5.7%), ‘기타’ 82명(24.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어도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어도 관련 해녀들의 민요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어도 영토> 설문문항에서 ① 응답자들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위치에 대한 응답은 ‘동해’ 23명(6.9%), ‘서해’ 14명(4.2%), ‘남해’ 89명(26.6%), ‘동중국해’ 28명(8.4%), ‘모른다’ 180명(53.9%)으로 나타났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위치에 대해 응답자의 50% 이상이 모른다는 응답은 학교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② 응답자들의 ‘이어도 해양 갈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71명(51.2%), ‘대체로 그렇지 않다’ 69명(20.6%), ‘보통이다’ 52명(15.6%), ‘대체로 그렇다’ 29명(8.7%), ‘매우 그렇다’ 13명(3.9%)으로 나타났다.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간 영유권 갈등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의견이 50%를 넘고 있다는 것은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

③ 응답자들의 ‘이어도가 중국과 일본이 탐내는 요충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54명(46.1%), ‘대체로 그렇지 않다’ 48명(14.4%), ‘보통이다’ 51명(15.3%), ‘대체로 그렇다’ 44명(13.2%), ‘매우 그렇다’ 37명(11.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어도가 중국과 일본이 탐내는 요충지라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응답자들의 ‘이어도 해역이 황금어장임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40명(41.9%), ‘대체로 그렇지 않다’ 58명(17.4%), ‘보통이다’ 56명(16.8%), ‘대체로 그렇다’ 48명(14.3%), ‘매우 그렇다’ 32명(9.6%)으로 나타났다.

⑤ 응답자들의 ‘이어도 해역의 해저광물자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56명(46.7%), ‘대체로 그렇지 않다’ 73명(21.8%), ‘보통이다’ 61명(18.3%), ‘대체로 그렇다’ 26명(7.8%), ‘매우 그렇다’ 18명(5.4%)으로 나타났다. ④와 ⑤를 통해 응답자들은 이어도가 풍부한 수산물을 거느리고 있는 황금어장이라는 사실과 해저광물자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⑥ 응답자들의 ‘이어도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은 ‘군사·안보적 가치’ 59명(17.7%), ‘지리·과학적 가치’ 160명(47.9%), ‘문화·상징적 가치’ 83명(24.8%), ‘기타’ 32명(9.6%)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어도 교육> 설문문항에서 ① 응답자들의 ‘재학 중 처음으로 이어도를 접한 시기’에 대한 응답은 ‘유치원’ 20명(6.0%), ‘초등학교’ 84명(25.1%), ‘중학교’ 147명(44.0%), ‘고등학교’ 83명(24.9%)으로 나타났다.

② 응답자들의 ‘학창시절에 이어도 관련 내용을 접한 교과’에 대한 응답은 ‘지리’ 23명(6.9%), ‘사회’ 93명(27.8%), ‘국어’ 11명(3.3%), ‘국사’ 17명(5.1%), ‘음악’ 43명(12.9%), ‘없다’ 147명(44.0%)으로 나타났다.

③ 응답자들의 ‘이어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대한 응답은 ‘유치원’ 59명(3.0%), ‘초등학교’ 160명(33.2%), ‘중학교’ 183명(54.8%), ‘고등학교’ 30명(9.0%)으로 나타났다.

④ 응답자들의 ‘이어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8%), ‘대체로 그렇지 않다’ 3명(0.9%), ‘보통이다’ 39명(11.7%), ‘대체로 그렇다’ 119명(35.6%), ‘매우 그렇다’ 167명(50.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0% 정도가 학교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⑤ 응답자들의 ‘이어도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4명(1.2%), ‘대체로 그렇지 않다’ 7명(2.1%), ‘보통이다’ 54명(16.2%), ‘대체로 그렇다’ 114명(34.1%), ‘매우 그렇다’ 155명(46.4%)으로 나타났다.

다. 이어도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에 대해 80%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⑥ 응답자들의 ‘지금까지 이어도에 대한 교육·홍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32명(39.5%), ‘대체로 그렇지 않다’ 66명(19.7%), ‘보통이다’ 64명(19.1%), ‘대체로 그렇다’ 32명(9.5%), ‘매우 그렇다’ 40명(11.9%)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이어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60%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보다 체계적인 이어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이어도를 실존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어도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어도 관련 해녀들의 민요가 연상된다고 답했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위치를 50% 이상이 모르며, 이어도가 가지는 황금어장과 해저광물자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의 40% 정도가 학교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어도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에 대해 80%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60%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이어도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모자란 점이 있다면 충족시켜야 한다. 문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어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리적 환경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와의 분쟁 상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다시 교육 현장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 Ⅲ. 이어도 영유권 분쟁 실태

#### 1. 동아시아 국가 간 주요 영토분쟁 지역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sup>56)</sup>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를 담아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에게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과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에 근거한 확장된 대륙붕을 부여하고 있다.

즉, 12해리를 기본으로 하는 영해의 폭에 대한 결정과 대륙붕의 바깥쪽 해저인 심해저제도<sup>57)</sup>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해 바깥의 기선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모든 섬에 대하여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이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Rocks)’인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8)</sup>

그렇지만 섬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섬을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6) 1982년 4월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인류공동의 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의 논의 결과로 탄생한 법이다. 이 협약이 발효된 것은 1994년 11월 16일. 1996년 1월 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85개국이 비준을 마쳐 포괄적인 해양현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영해·접속수역·대륙붕·공해·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해양과학조사·해양기술이전·분쟁해결 등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협약은 국가관할수역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해양법을 보완·발전시켰는데, 12해리 영해제도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등이 이 협약으로 보장된 해양국가의 권리이다. (매일경제)

57) 심해저란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대륙붕을 넘은 해저를 말한다 (해양법협약 제1조). 심해저에는 망간단괴(다금속단괴)가 대량으로 존재하며, 1960년대에는 그 개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1967년 몰타의 유엔대사 팔도(Paldo)는 심해저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에 격심한 대립·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유엔총회에서 대륙붕의 한계를 명확히 할 것, 심해저 개발은 인류(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해 할 것, 심해저에 새로운 국제제도를 수립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58)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섬제도 3항. 제3항에서는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9> 동아시아 주요 영토분쟁 지역 (출처: 연합뉴스, 2012.07.11.)

중국-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사군도(南沙群島)<sup>59)</sup> 경우, 대다수 학자들이 남사군도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해당하는 바위섬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거주가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제121조 3항에 해당하는 바위섬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59) 남중국해 남단 30여 개의 작은 섬과 40여 개의 암초 및 산호초로 이루어진 군도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간 영토분쟁지역. 동으로 필리핀, 남으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서로 베트남, 북으로 중국과 타이완을 마주치고 있는 해상교통·어업의 요충지이자 인근 해역에 석유·천연가스가 풍부해 이들 6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중국과 일본 사이 영유권 분쟁이 되고 있는 조어군도(釣魚群島)는 명나라 초기 영락(永樂) 원년(1403년)에 출판된 <순풍상송(順風相送)>이란 책에 '조어서'(釣魚嶼)란 이름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고, 1863년에 작성된 세계지도(중국어 정체: 皇朝一統輿地全圖)에는 이 군도가 푸젠 성(福建省)에 부속한 다오위타이 군도(釣魚台群島)로 표시되어 있다.<sup>60)</sup>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귀속되어 일본이 지배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 하에서 오키나와 관할로 되어 있던 것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한 이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sup>61)</sup>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엄청난 석유 및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양국의 영유권 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2년 중·일 수교 시 조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뒤로 미루자는 합의 하에 갈등을 피해왔다. 이 섬들에 대한 최근 분쟁격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도쿄시가 조어도를 매입하겠다는 발언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실제 3개의 섬을 매입하여 국유화 조치를 취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10일 국유화 결정을 내리자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여 조어도 및 부속도서 등 19개 부속 도서를 영해기점으로 삼는다고 선포하고 해양감시선을 과건하자 사태가 악화되면서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sup>62)</sup>

60) 센카쿠 열도(일본어: 尖閣列島, 첨각열도) 또는 다오위다오 열서(중국어 간체: 釣魚台列嶼, 병음: Diàoyútdǎo)는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다섯 개의 무인도와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된 군도로, 타이완과 류큐 제도 사이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1884년 영국 해군이 명명한 피너클 제도(Pinnacle Islands →뽕죽한 섬들)라고 부르는데, 센카쿠(尖閣 →첨각)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하였다.(위키백과)

61) 센카쿠 열도 (위키백과)

62) 이태환, 「中해양진출 vs 美·日동맹강화 양상 민족주의 정서 맞물려 위기 중」, 「통일한국」 통권346호, 2012.10.

## 2.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 주요 분쟁

### 1) 영해기선(base line)<sup>63)</sup> 설정 문제

영해(territorial sea)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영해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아직 정설이 없으나 세계 각국은 각기 3해리, 6해리, 12해리 또는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다.<sup>64)</sup>

영해는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으로 영해의 경계획정은 관련 당사국 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마주보는 국가(opposite state) 간의 양 해안거리가 24마일이 되지 않는 경우와 영토가 인접한 국가(adjacent state) 간에는 중간선(中間線) 또는 등거리(等距離) 원칙에 의해 영해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65)</sup>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sup>66)</sup>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sup>67)</sup> 한·중 간에 영해범위 12해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영해 설정의 기준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해기선의 설정방법은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에서 통상기선(normal base line)이 채택되어 해안선을 기점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안선이 밀·썰물과 기상의 영향 등으로 침식되고 굴곡됨에 따라, 1982년 해양법협약에 직선기선(straight base line) 방식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도서들이 늘어선 지역 등에 국한해 관련국 간 합의를 통해 외곽

63) 고충석,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한국의 이너서티브」, 한겨레, 2012년 10월 4일, “영해기선은 영해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선이다.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해양경계획정은 모두 기선을 토대로 한다.”

6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65쪽.

65)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중간선 원칙은 마주보는 국가 간 서로 마주보는 각 연안의 가장 가까운 지점 간 거리의 중간점의 궤적이 두 국가 영해의 경계가 되며, 등거리 원칙은 관련 두 국가 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궤적이 두 국가의 영해의 경계가 된다.

66) 기선(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륙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67)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도서 또는 인공 건조물 등을 기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은 199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관한 비준 동의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방침을 밝히면서 대륙연안에 48개, 서사군도 주변에 27개의 영해 직선기선을 선포하였다. 건국 이래 최초로 영해 직선기선을 선포하였지만 해양법상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설정한 기점이 직선기선의 요건인 해안선 굴곡에 적합하지 않으며,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sup>68)</sup>

이와 같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기선 기준은 앞으로 한·중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 협의 시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적인 논쟁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련한 대립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일본이나 다른 동남아국가들과 같이 도서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영유권에 관한 심각한 다툼은 없는 편이다. 양국 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을 통해서 공동관리수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획정이 없기 때문에 양국 간의 경계를 둘러싼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과 수교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어려움이 많았다.

한·중 간의 어업문제에 관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의 조기 도입보다는 현행의 공해자유 원칙에 입각한 어업질서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영해 12해리 이원(以遠)의 수역을 모두 현행 자유어로질서(自由漁撈秩序)를 유지하는 공동어로수역으로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협상타결에 어려움을 주었다.<sup>69)</sup>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 관련 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라고 얘기한다. 유엔해양법상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 이어도는 영해가 아닌 배타

68) 배진수,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 한국해양전략연구원, 1998, p.26.

69) 김영구, 한중어업협정과 우리의 당면과제, 제8호-한중어협 해양포럼, 국회해양포럼 조찬강연회, 2011.04.26.

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0)</sup>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않는다. 국제법에 따르면 수역이 겹칠 때는 양국이 합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한·중 간의 경계가 분명해지게 되면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의 활동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림 10> 한중일 해상경계 주장선(출처: 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

사실 따지자면 이어도는 영토 분쟁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제법상 볼 때 ‘섬’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에 따르면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어야 한다. 이어도는 파도가 세차게 치는 날이

70) 이경태, 정부 “이어도 영토 아니다” 새누리도 발끈 / 여야 ‘중국 방공구역’ 무대응 비판에도 정부 ‘관계 없다’ 답변 논란 자초, ohmynews, 2013.11.27.

아니면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영토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또 다른 규정에 따르면 간조노출지에 한해 영해기선<sup>71)</sup>으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간조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는 거리에 있을 때만 해당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못한다.<sup>72)</sup>

이어도는 간조 시에도 해수면 아래 잠겨있는 암초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지만, 간조노출지라 하더라도 한국의 최남단 영토인 마라도에서 80해리 이상 떨어져 있어 영해기선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해양과학기지의 건설로 일종의 ‘인공섬’의 모양을 갖춘 지금이라면 섬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8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결국 논쟁의 중심은 섬의 영유권이나 주변수역 관할권 문제라기보다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 획정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서 이어도 주변해역은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양국 모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sup>73)</sup>에서 중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을 한국 측의 과도수역<sup>74)</sup>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잠정조치수역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과도수역으

71) 영토 관할권 확정에 기본이 되는 기선으로, 통상기선(normal baseline)과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제정된 영해법에 의거 동, 남, 서해의 최외곽에 위치하는 육지 또는 섬의 끝점으로 동해안에 4점, 남해안에 9점, 서해안에 10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은 통상기선이 적용되고,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이 영해법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① 통상기선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해양법협약 제5조) ② 직선기선 :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해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있는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을 획선함에 있어서 적절한 선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72)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3.

73)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한중 양국이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한 이후 양국 간 수역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해양경계 획정은 장기적 사안이 되었다. 이에 서해 수역 획정과 어업협력을 위하여 1993년 12월부터 1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국회 비준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4) 중국과의 어업협정에서 나오는 용어로 육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국의 허가를 받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 가운데에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이 있는데, 과도수역은 잠정조치수역에서 협정발효 4년 후 EEZ로 편입되는 수역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 (매일경제)



로 인정하게 될 경우에 국제해양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sup>75)</sup>의 등거리선에 의한 해양경계작도 기준에 의해 이어도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영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 1996년 이후 17년간 15차례나 회담을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해상 경계를 빨리 결정하자는 입장이고, 중국은 계속 미적대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sup>76)</sup>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 원칙, 즉 형평의 원칙은 설득력이 없다. 한·중 양국의 중간수역은 대부분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중시하는 중간선(마주하는 두 국가의 연안 가운데를 연결한 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법적 타당성을 갖는다. 국제 판례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국제법적 근거에 입각해 중국과 해양경계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sup>77)</sup>

즉, 국제 판례의 경향에 따라 마주보는 국가 간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대륙붕을 포괄하는 단일 해양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이다.<sup>78)</sup>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수역의 선포는 고려할 만하다. 안전수역(Safety Zone)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4항에 의해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바다를 대상으로 선포할 수 있다.<sup>79)</sup>

한국이 이어도를 중심으로 안전수역(Safety Zone)을 선포할 경우, 수면상태에 있던 한·중 양국의 어업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sup>80)</sup>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안전수역을 선포한다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로

75) ITLOS(國際海洋裁判所).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 국가 간 해양관련 분쟁을 해결해 나갈 국제사법기구로 1995년 8월에 설립됐다. 다른 유엔기구들이 유엔 사무총장 관할 아래 있는 것과는 달리 국제사법재판소처럼 재판소장 책임 하에 운영되는 기구이므로 독립성이 강하다.

76) 안용현, “이어도 둘러싼 한중 해상경계 문제 이번엔 해결되나”, 조선일보, 2013.06.29.

77) 이창위, “중국의 이어도 역지”, 세계일보, 2012.03.15.

78) 박기갑, “이어도 국제소송 가도 우리가 이긴다”, 조선일보, 2012.03.13.

79)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4항: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주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80) 백민정, 「이어도 안전수역 관련 국제법적 논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제327호, 2013.10.18. pp.13-24.

인해 외교적 갈등이 나타날 수는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보다는 우리 영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이었다. 반면 중국은 EZZ 기선(기준점)을 유인도로 삼는 국제법적 관례를 무시하고 무인도인 퉁다오(東島, 동도)<sup>81)</sup>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관할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지만, 관할권이나 영유권 등은 자국의 이익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해결이 쉽지는 않다.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주장은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명백하게 제시해놓은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기초로 하여 분쟁 국가 간에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 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국제 판례에 적용되는 중간선 개념을 가지고 결정한다면 이어도는 우리의 관할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송 자체가 당사국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타결을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해양 경계 문제에서도 불가역적 성격이 있다고 한다. 해양 경계 획정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한 번 획정이 되면 그 국가가 분리·독립되거나 합병·병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국제법상 중요한 원칙이다.<sup>82)</sup>

이어도 인근해가 지속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다면, ‘분쟁보류’의 분위기에 휩쓸려 해당수역에 대한 명확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행 공동어업구역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 수역이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우리에게는 실익이 별로 없지만 중국에게는 크게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결국 이어도 문제의 본질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경계의 획정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분쟁의 해법은 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에 의해 이어도 주변 해역이 한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의 수역인지 정해지게 된다.

81) 무인도인 퉁다오를 기준으로 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245km가 되고, 유인도인 서산다오에서 부터는 287km가 되어 42km가 더 가깝게 된다.

82) 이창위, “이어도 반드시 한국 경계 안으로 포함시켜야”, 중앙일보, 2016.01.13.

### 3) 방공식별구역과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

영공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1969년 설정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이 이어도는 물론이고 제주도 남쪽 마라도 인근 영공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83)</sup> 국방부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영공)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km)였는데, 1982년부터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됐다”며 “그러다 보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로 넘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sup>84)</sup>

우리 영해가 확장되면서 마라도 인근 영해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일부 겹치는데, 이는 30년 넘는 동안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6·25전쟁 중 미태평양공군사령부(PACAF: Pacific Air Force)가 중공군의 공습 저지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이어도를 포함하지 않고, 북측 방공망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에 이어도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하는 구역 조정 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이를 일축한 뒤 1969년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공포해버렸다.<sup>85)</sup>

정부는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동·서쪽 경계선은 그대로 두고 거제도과 제주도의 남쪽 경계선만 인근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범위를 조정했다.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정하고 국제협약이 통용되는 구역이고, 마라도와 홍도 남쪽 영공과 우리 관할 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모두 포함하는 데다,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치시킬 경우 민간 항공기들이 추가 부담 없이 지금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만 비행 계획을 통보하면 된다는 세 가지 이유에서다.<sup>86)</sup>

83) 김선영, 방공구역 뒷북 외교, 구멍 뚫린 하늘주권 / 日, 마라도 인근 영공까지 30여년간 침범 밝혀져 / 자세 대응 비판에 “방공구역 이어도 포함 추진”, 세계일보, 2013.11.26.

84) 국방부 정례브리핑, 2013. 11. 26.

85) 김선영, 방공구역 뒷북 외교, 구멍 뚫린 하늘주권 / 日, 마라도 인근 영공까지 30여년간 침범 밝혀져 / 자세 대응 비판에 “방공구역 이어도 포함 추진”, 세계일보, 2013.11.26.

86) 권성경, “방공식별구역 62년 만에 확대 선포, 이어도·마라도·홍도 남방 포함”, 한국일보, 2013.12.08.



<그림 11>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출처: 연합뉴스, 2013.12.08.)

중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어도 상공을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지만 우리는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게 되고, 정부는 2013년 11월 15일 14시를 기해 이어도가 포함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내놓는다. 이어도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영역보다 동남쪽으로, 즉 일본 열도와 남중국해지역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확대되게 되었다.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 구역에서 배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어도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영역보다 동남쪽으로, 즉 일본 열도와 남중국해지역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해양 경계 분쟁에서 중국 주장의 허구

##### (1) 실트라인 이론(silt line theory)

이어도 해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가 서로 겹치는 곳이다. 한국과 중국 해안선을 경계로 중간선을 그으면 한국 쪽에 들어와 있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공해(公海)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황해가 중국에서 기원한 퇴적물로 덮여 있어 중국 대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바다이므로 이 연장선에 있는 이어도가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실트라인(silt line)이론이다. 여태까지의 연구를 종합한다 해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을 뿐, 대부분이 정설로 인정되는 것은 없다. 실트라인(silt line)의 개념은 황해가 대부분의 중국기원 퇴적물로 뒤덮였다는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로, 황해가 많은 퇴적물을 배출하므로 황해 대부분이 Silt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중국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황해 퇴적물 기원지 연구 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때로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믿기 어려운 데이터도 많아 연구를 더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 논문 결과에 대해 한국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황해 퇴적물 기원은 중국과 한국 기원 퇴적물의 혼합체로 나타나는데,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황해 퇴적물이 한반도 기원 물질로도 상당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당히 상식을 깨는 이야기이다.<sup>87)</sup>

한반도 서해안의 해수면 변동의 과정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태안반도 지역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해안으로, 태안반도 지역의 연안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해수면 변동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sup>88)</sup>

한반도의 제4기 후기의 해수면 상승에 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196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해의 조간대와 연안에서 획득한 시추 퇴적층의 퇴적학적 분석결과와 탄소연대 측정에 근거한 현세 해수면 변동(Holocene sea-level change of rise)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sup>89)</sup>

87) 정희수, 「중국 EEZ 및 대륙붕법, 그리고 자연연장설」, 한국해양연구원 한중해양공동연구센터, 2006.11.

88) 장동호·윤정미·김장수, 「충남 태안반도의 해안선 변화 분석과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09.10.

89) 박용안, 「방사성탄소 C14에 의한 한국 서해안 침수 및 침강현상 규명과 서해안에 발달한 반담수-염수 습





<그림 12> 위스콘신 빙하기의 최대 빙하 발달시기(LGM) 때에 위치한 고해안선  
 (출처: 장동호,윤정미,김장수, 「충남 태안반도의 해안선 변화 분석과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09.10. 자료에 저자 이어도 위치 추정 표기(붉은색 원))

황해와 남해는 많은 염하구와 만 또는 도서를 포함하는 리아스식 침수해안이다. 해안선의 굴곡은 상당히 심하지만, 넓은 조간대와 인공적인 제방에 의해 그 모양이 점차 단순하게 변하고 있다. 황해와 남해의 현세 후기(Late Holocene) 침수의 증거는 20여 년 동안에 간헐적으로 밝혀지고 있다.<sup>90)</sup> 최대 빙하 발달시기

지 퇴적층에 관한 층서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5, 1969, pp.57-66.

90) 장동호, 「서해안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2008.

(LGM) 동안 해수면이 최저로 낮았을 때, 즉 현재의 해수면보다 약 138m~143m 아래에 있었을 때 한반도는 반도의 형태가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한쪽에 붙어 있는 대륙의 일부분이며, 그 당시에는 황해(서해), 동지나해 및 남해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열도와 중국 및 한반도는 하나의 대륙으로 존재하였다.<sup>91)</sup>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약 만 년 전 해수면이 낮았을 당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古)수로와 고(古)해안선을 표시한 것이다(그림11 참조). 당시에는 황해가 전부 육지였고, 한반도와 중국에서 기원한 강들이 황해 중심부를 흐르고 있다.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 삼중합점(EEZ triple junction) 예측 지점에 자원의 보고일 수 있는 고(古)황하 하구가 있다.<sup>92)</sup>

지금까지의 연구물들을 볼 때, 자연 연장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실트라인(silt line)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실트라인(silt line)설이 국제법상으로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 결국 이 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에 있어서 통념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설을 근거로 해서 이어도에 대해 자신들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 (2) 형평의 원칙

지난 2003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이후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국간 해양 경계 분쟁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한 단체에서는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명명하고 이어도에 선박을 보내 ‘중국령’이라고 새긴 동패와 석비를 세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1996년부터 14차례에 걸쳐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계속 결렬돼 2008년 11월 이후론 아예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sup>93)</sup>

암초는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해중암초

91) 장동호·윤정미·김장수, 「충남 태안반도의 해안선 변화 분석과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09.10.

92) 정희수, 「중국 EEZ 및 대륙붕 법, 그리고 자연연장설」, 한국해양연구원 한중해양공동연구센터, 2006.11.

93) 이창위, “이어도 반드시 한국 경계 안으로 포함시켜야”, 중앙일보, 2016.01.13. “영해는 영토와 똑 같아서 주권이 행사된다. 이는 절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주권이 아니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행사된다. 주권적 권리는 주로 어업 자원의 개발이나 해양 자원의 개발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의 권리를 말한다. 관할권은 해양환경과 해양과학에 대한 조사권을 말한다. EEZ를 넘어서 해저에 있는 대륙붕에 대해서는 주로 해저광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행사된다고 말한다.”

(海中岩礁)에 관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첨예한 관할 분쟁은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풍부한 해저자원 특히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가이익이 걸린 예민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sup>94)</sup>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해양법협약 상의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동중국해에서 한중간 해양 경계를 획정한다면, 이어도의 한국 관할 귀속은 부정될 것이며, 결국 한국 측 제4광구<sup>95)</sup>와 제7광구 일부가 중국 측에 포함될 것이다. 중국의 해양법학계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소위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기준을 무시하고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sup>96)</sup>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 본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전상에 있으므로 지질학적 관점에서 자국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국제 판례의 경향은 “마주 보는 국가 간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대륙붕을 포괄하는 단일 해양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sup>97)</sup>”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이다.

실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2년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선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sup>98)</sup>를 인용하여 중간선(마주하는 두 국가의 연안 가운데를 연결한 선)으로 결정했다.<sup>99)</sup>

재판소는 “기존 판례를 적용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을 그은 후 오

94) (사)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 도서출판 선인, 2011, p.170.

95) 길병욱·최병학, 「해양영토 주권의 역사적 근원 및 영유권에 대한 논리적 고찰」, 『해양전략』 153호, 2012, p.198. “1970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제정해, 그 시행령에 이어도를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포함시켰다.”

96) (사)이어도연구회, 상게서, p.172.

97) Judgment on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March 14 2012, p.60, “The Tribunal accordingly will draw a single delimitation line for both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98)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9) Judgment on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March 14 2012, p.148.

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 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우리의 주장인 중간선(Median Line) 원칙에 입각한 판례다.<sup>100)</sup>

따라서 양국 간 이어도 주변 수역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국제소송에 돌입하게 될 경우, 우리 측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sup>101)</sup>

이 판결을 적용할 경우 이어도는 우리나라 해역에 속하게 된다. 이어도가 중국 본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선상에 있으므로 지질학적 관점에서 자국 관할권이라 주장한다. 중국은 상부 수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륙붕(해저와 하층토)만큼은 이어도까지 연장하려 할 것이다. 또한 해안선의 길이, 조업인구 등 형평성의 논리를 꺼내들며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원론적 해양 경계 획정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을 완벽하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논리적인 필요가 있다.

### (3) 불법적 해양과학기지 운용 주장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어도 수역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국제적 협상 사례를 보면 대부분 중간선 원칙에 따라 확정되었고, 이 원칙으로 보면 이어도는 우리 영토와 훨씬 가깝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이전에도 다용도의 인공 시설을 세우는 등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중국의 군함이나 해양감시선 등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항행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이어도 기지는 인공구조물로 독자적인 영해를 갖지 못하지만, 연안국이 주위에 안전수역(Safety Zone)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한국이 이어도에 안전수역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양감시선이 일방적으로 이어도 주

100) 박관규, “‘이어도 관할권’ 유리한 판결 나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뱅골만 분쟁서 “해양경계는 양국간 중간선”, 한국일보, 2012.04.17.

101) 박기갑, “이어도, 국제소송가도 우리가 이긴다”, 조선일보, 2012.03.13.



변 500m 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벌이거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돌며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sup>102)</sup>



<그림 1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치고 있는 중국어선들.  
(장원석, 2013.08.04.)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74조 3항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각국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인공구조물이므로 독자적인 영해를 갖지 못하지만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과 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최대 500m 반지름의 안전수역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sup>103)</sup>

102) 백민정, 「이어도 안전수역 관련 국제법적 논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제327호, 2013.10.18. p.13-24.

103)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5항: 연안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수역의 폭을 결정한다. 이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과학기지 건설을 반대하였고, 한국이 이어도에 안전수역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어도를 자국의 수역이라고 발표하며 일방적으로 군용기, 해군 함정 등을 파견시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과학조사 시 연안국의 동의규정을 두고 있고,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는 동의요구조항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의 동의 없이 이 같은 불법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 (4) 중국 고문서 『산해경(山海經, Shan Hai Jing)』의 근거 주장

『산해경(山海經)』의 기록을 근거로 하는 주장도 있다. 이어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타나 있다는 중국 측의 문헌이다. 『산해경』은 중국 선진(先秦) 시대에 저술되었다고 추정되는 대표적인 신화집 및 지리서이다.

우(禹)의 협력자 백익(伯益)의 저서라고도 전하나 이것은 가설이고, 춘추 시대부터 한대(漢代) 초기까지 걸쳐서 호기심 많은 학자들이 한 가지씩 첨가한 것인데, 남산경(南山經)에서 시작하여 해내경(海內經)으로 끝나는 총 18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晉)나라(265-420)의 곽박(郭璞)이 기존의 자료를 모아 편찬하여 주(註)를 달았다.

산경(山經)과 해경(海經)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 각지의 산과 바다에 나오는 풍물을 기록하였다. 내용 중에는 상상의 생물이나 산물이 있어서 지리서라고 하지만 전설 속의 지리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 책이 처음부터 이어도를 담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에서도 없었다. 다만 한국 쪽에서 이어도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설화들을 제시하고 이 속에 등장하는 이어도가 지금의 이어도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펴자, 중국은 이에 맞불로서 BC4세기경 선진시대(先秦時代=춘추전국시대)에 제작되었다는 『산해경』 속의 삼신산(三神山) 설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sup>104)</sup>

그러나 이 문헌은 『사기』에서 사마천조차 감히 말할 수 없는 기서(奇書)로 믿

---

러한 수역은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성격 및 기능과 합리적으로 연관되도록 설정되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권한 있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바깥쪽 끝의 각 점으로부터 측정하여 5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안전수역의 범위는 적절히 공시한다.

104) 송성대, 『두 개의 얼굴, 이어도』, 이어도연구회, 도서출판 각, 2015, p.120.

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본래 비과학적이고 신비한 신화를 수록한 책이므로 믿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쑤우암초(蘇岩礁, Su Rock)’가 이어도를 지칭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맞다는 것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중국은 『산해경』에 “東海之外(동해지외) ……，大荒之中(대황지중)，有山名曰猗天蘇山(유산명왈의천소산)”(동해 밖, 대황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의천소산이라 한다)이라는 문구에서 찾는다. 그들은 그 문구의 끝 ‘소산(蘇山)’이 바로 ‘소암(蘇岩)’과 같으므로 문제의 암초, 즉 자오(礁, 초)에 쑤옌(蘇岩, 소암)을 붙여 ‘쑤옌자오’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105)</sup>

이어도 연구회는 “소산(蘇山, 쑤옌)이 바로 그들(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산인데 과거 중국인들이 암초를 산으로도 표현했다는 주장은 억지로 끼워 맞춘 논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연구회는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산해경(山海經)이 유일한 반면에 한국은 다수의 고문헌, 고지도, 설화 및 민요 등에서 이어도 서사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sup>10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소암초(蘇岩礁)는 중국에 속한 암초이다. 동중국해(East China Sea)는 중국 역사의 전통수역이며 이 해역의 중심에 있는 소암초는 당연히 중국에 속한 바다 밑 섬이다. 많은 고대 문헌(예컨대 산해경)에 기록이 있다. 그리고 1890년대 중국이 북양함대를 세우고 그 해도에 소암초를 명기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이어도를 지리적으로 인식한 1990년대보다 100년 이상 앞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다. 1963년 5월 1일, 중국 최초의 대형 수송선 약진호가 이어도 위에 좌초되었다.<sup>107)</sup> 이것은 당시의 중국 해도에 이어도 즉 소암초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다. 주은래 수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소암초 부근 동중국해 근해 해저를 철저히 탐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중국이 이 근해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를 완결한 것은 1992년 5월 12일이다. 이는 한국이 이어도에 관한 과학 탐사를 완결한 1984년보다 약 8년이 뒤진 것이다.

105) 송성대, 전게서, pp.120-121.

106) ‘하멜표류기에 이어도 추정 암초 기록 있다’, 연합뉴스, 2012.03.13.

107) ‘이어도 부근 수중암초 우리식 이름 짓는다’, 바다뉴스, 2006.10.27. “해양조사원은 또 이번 조사에서 이어도 남동쪽 3.1km 지점에서 길이 17, 폭 40m의 대형 침몰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중국 쪽은 이 잔해가 1963년 침몰한 중국 최초의 원양화물선인 ‘약진호’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를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중국에서 이어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이후인 최근에 들어서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장의 근거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의 주장은 근거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조차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5) 이어도 분쟁을 유도하는 중국의 의도

### (1) 잠재적 해저자원 확보

이어도 해역은 동북아시아 한·중·일 3국이 모두 400해리 미만의 좁은 해역으로 마주보고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복되는 지역이다. 이 수역에서는 200해리(370km) 내에서 다른 나라 선박들의 이동 등은 가능하지만, 경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이어도 해역은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로부터 200해리 안에 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마라도에서 이어도까지는 80해리(149km), 중국의 ‘서산따오(똥따오가 기점이 아님)’에서 이어도까지는 155해리(287km)이 되는 등 235해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08)</sup>

이는 서로 주장하는 관할권이 일정 부분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길은 어렵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sup>109)</sup>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대륙붕 경계 협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의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 판례에서는 최근 “가상 중간선 → 관련상황 및 특별한 사정(임시 중간선 조정요소 고려) → 비례성(최종 경계선 도출)”이라는 삼단계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해양경계 획정에 접근하려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때 해양경계 획정 중간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로는 해안선 길이, 어업자원, 기점 및 기선, 도서의 존재 등이 있으며, 이

108) 송성대, 「한중간 이어도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2010, pp.414-429.

109)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회의(UNCLOS-III, 1973년~1982년)의 결과 1982년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위키백과)

외에 광물(에너지)자원은 경계획정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특히 대상 수역에 도서가 위치할 경우 이는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sup>110)</sup>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부터 중국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의 거리는 ‘도리시마’로부터는 이어도까지는 276km가 된다. 오히려 중국보다는 일본이 더 가깝다.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며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이어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 때문이다. 중국은 거대 국가로서 거대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수산자원이나 에너지 자원 등의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욕망은 매우 강하다.

이어도 해역은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 남하하는 황해 냉수 및 중국대륙의 연안수가 접촉하며 한·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의 황금어장으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여 수산자원 보고의 역할로 그 가치가 높다. 게다가 계절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 해수순환 등의 메커니즘을 파악 가능하도록 하는, 해양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sup>111)</sup>

이어도는 인근 12개 대륙붕 광구 중 4광구 내에 있다. 대륙붕 아래에는 천연가스, 원유 등 다량의 자원이 묻혀 있다. 1969~2005년 진행된 4광구 자원탐사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점 3곳이 발견됐는데, 특히 주변에는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12)</sup> 이 외에도 다양한 기타 광물이나 수산자원 등이 풍부하므로 이러한 자원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상 및 해양 분야에서도 소중한 존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의 54%가 이어도 반경 150km 이내를 통과할 정도로 태풍의 중요한 길목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여기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게 된 것이다.

110) 김현수·양희철, 「한반도 주변수역 대중(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 방안 연구」, 『이어도연구』 제4권, 2013, p.99.

111) 심재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대하여, 한국해양연구소, 2006.05.14.

112) 강희각, 「한·중간 이어도 관할권(管轄權) 분쟁의 쟁점 분석」, 『한국해양안보포럼』 제2호, 2015.08.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ountry Analysis Brief, East China Sea, (Washington D.C.,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8.)

해양과학기술은 이어도 정봉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수심 41km에 설치되어있으며 종합 해상-기상관측소의 역할과 인공위성에 의한 해양원격탐사, 어-해황 예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지구환경 변화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 중요도와 가치는 무궁무진하다.<sup>113)</sup>

## (2) 태평양 진출 루트 확보를 통한 군사적 해양 제패

중국은 이어도 문제를 자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한반도 수역에 관한 영토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를 자신들의 관할권으로 차지하게 된다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전략적인 전진기지를 확보하게 되고, 그들의 진출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제거된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태평양을 향한 해양의 제패를 노리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중국은 내부적으로 해양권익 확대를 위한 해군력 증강을 표방한 바 있으며, 2009년 5월에는 외교부에 ‘경계와 해양사무사(邊界與海洋事務司)<sup>114)</sup>를 설립하여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외교섭 임무를 전담토록 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sup>115)</sup>하여야 한다. 목적은 동아시아 바다 길목에 있는 이어도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확보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의 해군 함대는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북해함대는 칭따오(靑島, 청도)<sup>116)</sup>에 사령부를 두고 있고 발해만과 황해를 맡고 있다. 닝보(寧波, 영파)<sup>117)</sup>에 사령부가 위치한 동해함대는 동중국해, 필리핀해 및 대만에 대한 작전임무를 맡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러시

113) 심재설, 「해양과학의 보고 이어도」, 한국해양연구원.

114)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설치하고 해양 경계 획정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를 설치한 목적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 영유권 분쟁 도서에 대한 적극적 관리 정책으로 확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양 경계 획정의 기준과 관련,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5) 김현수 · 양희철, 「한반도 주변수역 대중(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 방안 연구」, 『이어도연구』 제4권, 2013, p.109.

116) 중국 山東省(산둥성) 동부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중국 북부에서 제일가는 천연항 가운데 하나로 산둥반도 남쪽 해안에 있으며 膠州灣(자오저우만) 동쪽 어귀에 있다.

117) 중국 浙江省(저장성) 북동부 해안 평야에 있는 도시이다. 寧波(닝보)는 5세기 말엽 백제의 배가 중국 남부의 수도인 南京(난징)과 접촉하기 편리한 항구를 찾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처음으로 부각되었다. 杭州(항저우)가 南宋의 수도가 되면서, 수도로 들어가고 나오는 해상무역이 닝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자 그 중요성은 점차 커져갔다.



아에서 획득했거나 또는 국내 개발 중인 고성능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배치 받고 있다. 남해함대는 잔장(湛江, 담강)<sup>118)</sup>에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대한 초계, 특히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주장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중국의 각 함대는 예하에 해군항공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군수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자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각 함대에 구획된 지역의 연해, 근해 및 대양에 대한 작전책임을 맡고 있다.<sup>119)</sup>

중국이 이들 세 지역의 함대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어도가 그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어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어도에서는 군함이든 잠수함이든 모든 움직임을 제한 없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대 군사력의 움직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생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관심을 보이게 된 시기는 1996년경부터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할 영토’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도 이 시기에 해당한다. 이후 중국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감시선이나 정찰기 등을 등장시키는데, 우리는 여기에 맞서 해군이 등장한 적은 없고 해경순시선이 출동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부근 정찰을 위해 중국은 5회의 정찰비행을 실시했음을 공식 확인되었고, 한국과 중국은 매년 해양경계문제 협의를 위한 회합을 갖는 바, 중국은 2006년 베이징 회의에서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립과 활동에 관한 강한 항의를 제기하였다.

2012년 3월 3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해수부장관)은 “이어도는 중국관할”이라는 선언을 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여 감시, 감독,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의 분쟁은 재점화되었다.

실제 중국해군 소속 군함 및 잠수함이 상습적으로 우리의 이어도 작전구역을

118) 이전에는 광저우만(廣州灣)으로 불렸으며 항성(港城)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고, 중국대륙 최남단 루이저우 반도(雷州半島)에 위치하고 있다. 잔장은 광둥성 서쪽과 북부만의 경제중심으로, 중국대륙과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와 태평양의 서남부 항로에 가장 가까운 항구도시이다.

119) 김현기, 『중국 해군력 증강의 의미와 한국안보』, 해병대전략연구소, 2008.12.08.

침범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합동참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해군의 이어도 작전구역 침범 현황은 2011년 13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3년의 경우 7월 말 기준 벌써 31건에 이르고 있다.<sup>120)</sup>

많은 국제법학자들이 논평을 내는 등 안전수역 선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으나 아직 한국 정부는 안전수역을 선포하지 않았다. 이는 해양구조물의 합법적 관리 유지를 위해 안전수역 선포는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한·중 간 외교적 대립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21)</sup>

이와 같은 중국의 동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에 맞설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대응과 주장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와 논리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해 보인다.

### (3) 해양 물류 유통로 확보 분쟁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의 화물선들이 연 40여만 척이 지나다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물류 유통의 중심지이다. 곡물과 원자재, 원유 등을 우리나라로 실어나르는 선박 대부분이 이어도 항로를 지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자원 즉, 석유 자원이라든지 식량자원 등이 이동하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의 90% 이상이 이 해역을 지나서 이동하고 있다.<sup>122)</sup>

우리나라가 태평양으로 뻗어 나가는 길목인 이어도에서의 물류 유통 및 다양한 정보 확보는 해상물류차원이나, 군사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어도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해역을 중국이 통제하게 된다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중국과 외교적인 분쟁이나 국지전 등이 발생하여 중국에 의해서

120) 「중국, 이어도 제집 드나들 듯. 노골적 무력시위」 <<http://news.jtbc.co.kr/html/887/NB10344887.html>>

121) 백민정, 「이어도 안전수역 관련 국제법적 논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Northeast Asia Strategic Analysis), 2013.10.18.

122) 송성대, 「한중간 이어도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2010, pp.414-429.

이 해역이 차단이라도 된다면 한국의 모든 물류 유통은 여기서 막히게 된다. 수출이 경제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점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어도 해역에 대한 확보는 중요하다.

#### (4) 다른 인접국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포석

이어도 관할권 다툼과 관련된 문제는 한·중 간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 해결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은 무력전 양상으로 전개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도 관할권 분쟁에서 수세적으로 밀리면 여타의 분쟁해결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분쟁에서 이어도 관할권 확보를 위한 국제법적 명분을 쌓을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벌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제법적 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해역의 중간선을 택하면 명백히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나 인구수 등 형평성을 강조하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좀 더 동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어도의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준점을 유인도로 삼는 국제법적 관례를 무시하고 이어도와 가까운 뚱다오(童島)를 기준점으로 함으로써 16년째 경계협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어도 해역의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수역(水域)과 공역(空域) 모두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3.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규제대상이 대두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인공도(人工島)를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것이다.<sup>123)</sup>

얼마 전 기사에서 중국이 인공섬(人工島)을 구성한 면적이 이어도의 네 배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총 면적 13km<sup>2</sup>을 넘는 인공섬을 만들고 공항을 건설하는 등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인공섬이란 단순히 육지의 연장으로 해안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한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만든 일정한 크기의 섬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 인공섬의 건설은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많이 시도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들 수 있는데,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본은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에 지난 1994년 1백40억 달러를 들여 인공섬을 쌓고 간사이 공항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이들 이외의 선진국에서도 인공섬을 만들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은 국가 주권으로서의 영유권 외에, 관할권 확장, 해양자원, 해상교통로, 해양활동 거점으로서의 군사전략적 가치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권리 창출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sup>124)</sup>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통해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을 제외하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정의되는 섬(Island)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25)</sup>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1952년 인접 해양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에 속했다. 향후 중간선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어도 해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하게 된다.<sup>126)</sup> 이어도는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광구 중 제4 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하다.<sup>127)</sup>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경제적 목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해상도시,

123)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홈페이지 이어도 소개.

124) 김현수·양희철, 「한반도 주변수역 대중(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 방안 연구」, 『이어도연구』 제4권, 2013, p.101.

125) 김현수·양희철, 상계논문, 100쪽.

126)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홈페이지 이어도 소개.

127) 박준희,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대양해군 꿈꾸는 中, ‘이어도’ 트집잡아 분쟁지역화’, 서울신문, 2012.03.17.

해상공항 등의 모든 목적의 인공도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와 경제적 개발 그리고 그 법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에 대하여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어도는 일 년에 몇 차례 모습을 드러내는 간출지로 여겨지지만 해양법상에서 말하는 간출지는 만조 시 수중에 가라앉지만 간조시마다 수면에 나타나야 하므로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봐야 한다. 이어도 자체는 고조시에는 물론 저조시에도 수면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암초로서, 그 존재를 이유로 어느 나라든지 어떠한 영토의 주장이 불가능하다.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는 ‘인공시설 및 구조물’이나 ‘인공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sup>128)</sup>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마찰은 영토 분쟁을 넘어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분쟁이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많은 정치적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본 이어도 문제의 본질에 입각한 근본적 대응수단은 이어도에 안전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운영, 관리에 관한 합법성을 선점하는 것이다.<sup>129)</sup>

이어도는 “수중암초(rocks)”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른 섬(Island)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이어도에 인공도 또는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그 존재로 인하여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갖지 못한다. 다만 해양구조물에서부터 반경 500m<sup>130)</sup>까지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공도 시설 및 구조물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sup>131)</sup>. 공해상에서도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 자유로이 인공도나 기타 시설을 할 수 있다.<sup>132)</sup>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축조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및 그 운영에 대한 중국 측의 이견 표시는 해양법상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sup>133)</sup>

128)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8항.

129) 박기갑, ‘이어도, 국제소송가도 우리가 이긴다’, 조선일보, 2012.03.13.

130)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5항.

131)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b호의 (1).

132)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1항 (d).

133) 강효백, <특별기획-해양강국의 꿈, 이어도 사랑③ : 전문가 특별기고>, ‘대륙붕 관련 국내법 제정...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해야’, 데일리안, 2009.11.13



## IV. 이어도의 한국지리 교수-학습 방안

### 1. 한국지리 교과서의 이어도 기술 실태

#### 1) 이어도 기술 교과서 유형

이상과 같은 이어도를 학생들에게 바람직하게 교육하기 위해 먼저 각 출판사별 교과서의 내용에서 이어도와 관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을 첨가해야 하는지 분석도 따라야 한다. 그래야 이를 근거로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어도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지리 교과서는 출판사 5곳에 총 6종(교학사에서 2종을 발간)의 검·인정 교과서이다. 이는 모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sup>134)</sup> 다음은 출판사별로 이어도에 대한 기술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 2) 기술 내용 및 분석

##### (1) 교학사(기근도 외 7인) 교과서

독도와 간도에 대한 풍부한 접근을 하는 것에 비해 이어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아쉬움을 준다. 이것은 이어도에 대한 자료 부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중국과 한국 간에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섬이 아니라 암초라는 사실로 인해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이어도를 기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영해와 한·중·일 어업 수역도’ 그림을 넣어 삼국 간의 협력적 관리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이 배경에 이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134) 출판사별 순서대로 보면 교학사에서는 기근도 외, 김주환 외 한국지리 교과서 2종을 발간하였고, 금성출판사에서는 서태열 외, 미래엔에서는 박희두 외, 비상에서는 최규학 외, 천재교육에서는 박병익 외의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다.

## (2) 교학사(김주환 외 5인) 교과서

<p>이여도(북위 32° 7', 동경 125° 10')</p>  <p>제주도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암초이다. 2003년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해양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p>	<p>마라도(북위 33° 06' 43")</p>  <p>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를 이루는 섬으로,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다. 해안은 오랜 파도의 영향으로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와 달리 용천수가 없어 집집마다 비가 오면 빗물을 모으다가 여과시켜 가정 용수로 사용한다.</p>
--	---

- 01 섬을 제외한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국토의 중앙을 표시해 보고, 이곳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리부도를 통해 확인해 보자.
- 02 독도와 이여도가 갖는 지리적 중요성을 설명해 보자.

(출처 : 김주환 외, 『한국지리』, 교학사, 22쪽)

•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연안국은 이 해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개발이나 어업 활동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해상 교통에 있어서는 공해와 유사한데,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의 EEZ에서 항행, 상공 비행, 해저 전선 및 관선(官線) 부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배타적 경제 수역의 중첩을 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업 분야에 있어 일본과 1998년에 한·일 어업 협정을, 중국과 2001년에 한·중 어업 협정을 맺었다.

• **중간 수역** 한·일 양국 사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중첩으로 설정된 수역으로, 공동으로 어업 자원을 보존·관리한다.

• **잠정 조치 수역**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첩으로 황해에 설정된 수역으로, 이곳에서는 양국의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되, 양국 정부가 수산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 **과도 수역** 잠정 조치 수역의 좌·우측에 설정된 수역으로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현재는 자국의 EEZ 어업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영해와 한·중·일 어업 수역도

### 4. 독도와 간도 35

(출처 : 김주환 외, 『한국지리』, 교학사, 35쪽)

이어도와 관련해서는 22쪽에서 1/6쪽 정도의 분량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사진과 이에 대한 짝막한 언급에 그치고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보인다. 단원 개관이나 학습목표, 주요 개념 등에서도 이어도와 관련된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독도와 간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어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탐구하게 한 것은 이어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직접적으로 이어도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한 군데 더 언급하고자 하는 곳은 독도와 간도를 소개하는 1단원의 4장 부분에서 도움 자료로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영역’ 부분에 이어도 해역이 포함되어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작된 지도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요 개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간 수역, 잠정조치 수역, 과도 수역 등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도 해역이 포함된 지도를 제시하면서도 이어도를 명기하지 않아 이어도를 배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어도를 우리 영토나 영해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지도에서 이어도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어도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금성출판사(서태열 외) 교과서**

금성출판사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31쪽에 ‘독도의 중요성’과 같은 비중으로 ‘이어도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지리수업 장면에서 평소 논의하던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주요 논점을 제시했다.

즉, 이어도가 암초라는 사실, 해상교통로 상의 중요 지점이라는 것, 태풍을 미리 관찰하기 좋은 지점이라는 것,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는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이어도 위치 지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가 논의하는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 있는 지역이 같은 지역임을 강조한다. 바로 아래에는 활동으로 제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따른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를 묻고 말하게 하고 있다.

### 3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 별도의 어업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일본과 신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독도와 그 영해를 한·일 중간 수역이 둘러싸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독도 주변의 12해리는 우리나라의 영해이며,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고 함께 조업을 하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하였다. 잠정 조치 수역이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해양 자원의 보존을 위해 어선의 수를 제한하는 등 양적 관리를 실시하는 수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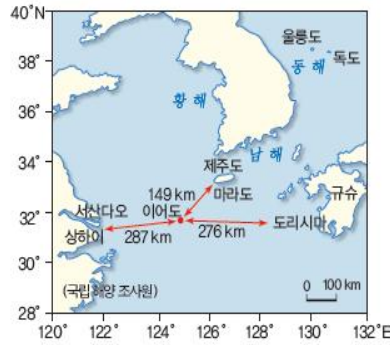
(출처 : 서태열 외,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29쪽)

### 2 이어도의 중요성

이어도는 섬이 아닌 암초이다. 섬은 항상 해수면에 드러나 있지만, 암초는 대부분 해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 이어도는 4개 봉우리 중에서도 최고봉이 수중 4.6 m 아래에 잠겨 있다.

이어도는 해상 교통로 상의 중요 지점에 있으며, 태풍을 미리 관찰하기에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에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건설하여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해양, 기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경의 수색 및 구조 기지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어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영유권 주장을 해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어도 위치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 활동 2

1 자료 1을 보고 독도의 중요성을 말해 보자.

생태적 측면	
경제적 측면	

2 자료 2를 참고하여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건설에 따른 유리한 점을 말해 보자.

(출처 : 서태열 외,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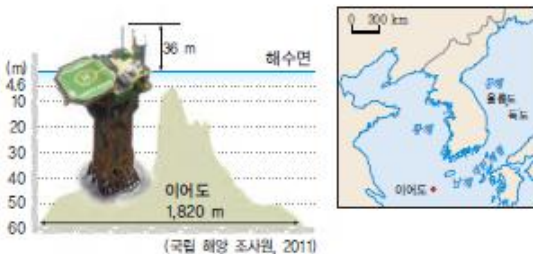


중요성 부분에서 독도와 같은 비중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이어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어도가 우리 것임을 주장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자료보완이 필요하다. 이어도에 대한 자료부족과 미해결된 영유권 분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4) 미래엔 출판사(박희두 외 7인) 교과서

##### 자료 2 이어도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중국의 서산다오에서 287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곳에 기상과 해양의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세웠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인데,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 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출처 : 박희두 외, 한국지리, 미래엔, 31쪽)

경계획정을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중간선 원칙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잠정 조치 수역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하지만 ‘자료3 한·중·일 어업 수역도’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이어도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어느 구역에 속하는 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

미래엔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독도와 간도,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나 백두산정계비 등의 언급을 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이어도에 대한 인식은 낮아 보인다.

다만 31쪽에 ‘자료 1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자료3 한·중·일 어업 수역도’와 관련하여 ‘자료 2 이어도’를 두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서산다오로부터 287km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라는 사실과 이상 및 해양의 조사·연구를 위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는 사실,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가 중첩되고 있는데 중간선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자료 3** 한·중·일 간 어업 수역도

한·중, 한·일 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경우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1999), 한·중(2001) 어업 협정부터 맺게 되었다.

중간 수역 한·일 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경우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일 양국 사이에 경계를 긋기 어려운 곳에 설정된 수역으로 공동으로 어업 자원을 보존 관리한다.

잠정 조치 수역 우리나라와 중국의 200해리가 겹치는 황해의 일부를 좌표로 지정한 수역으로, 이 수역에서는 양국의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되, 양국 정부가 수산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 1 **자료 1**, **자료 2**를 보고 배타적 경제 수역의 권리를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어도에 세운 종합 해양 과학 기지의 타당성을 말해 보자.
- 2 **자료 3**을 보고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간 수역 혹은 잠정 조치 수역의 차이를 설명해 보자.

(출처 : 박희두 외, 한국지리, 미래엔, 31쪽)

같은 쪽의 아래에서는 ‘제시된 자료1, 자료2를 보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권리를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어도에 세운 종합 해양 과학 기지의 타당성을 말해 보자’며 학습자들에게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준에서의 언급과 활동만으로는 이어도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기에는 모자라 이어도가 우리 것이라는 인식을 학습자들에게 심어주기에는 부족하다.

**(5) 비상 출판사(최규학 외 14인) 교과서**

◀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어로수역

우리나라는 1996년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해역이 좁은 한·중·일 간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확정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8년 한·일 간, 2001년 한·중 간 어업 협정을 맺어 중간 수역, 잠정 조치 수역을 정해 양측에서 공동으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역이 형성되었다.

(출처 : 최규학 외, 한국지리, 비상, 32쪽)

1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출처 : 최규학 외, 한국지리, 비상, 32쪽)

비상교과서에서는 독도와 간도에 대한 풍부한 접근을 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영해와 한·중·일 어업 수역도’ 그림을 넣어 삼국 간의 협력적 관리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이 배경에는 영토분쟁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심에 이어도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었다더라면 한다.


(6) 천재교육(박병익 외 7인) 출판사 교과서

04 독도와 이어도

▶ 독도(한국령)

생·각·열·기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맨눈으로 볼 수 있다. 울릉도 주민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알아왔고, 그 주변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왔다.

- 울릉도에서 정말 독도가 보일까?



(출처 : 박병익 외, 한국지리, 천재교육, 28쪽)

2 배타적 경제 수역(EEZ)

영해 기선에서 최대 200해리까지의 바다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할 수 있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자원 관할권 및 환경 보호권 등의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인공섬과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였으나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일본, 중국과 인접해 있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확정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일 \*어업 협정을 통해 중간 수역을 설정하였으며, 한·중 어업 협정을 통해 잠정 조치 수역을 정해 놓고 양측이 모두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업 협정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사이의 협회에 의하여 나라별, 어종별로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협정



9 바람직한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을 위해 동북아시아 3국이 해야 할 일을 서술해 보자.

(출처 : 박병익 외, 한국지리, 천재교육, 31쪽)



## 2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 ● 학습 목표

이어도의 위치와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의 역할에 대해 파악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어도를 보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파도가 아주 높을 때만 이 암초가 보였기 때문에 당시 어선으로는 무사히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이어도의 위치

이어도는 제주도 남서쪽에 있는 수중암초이다. 중국의 서산다오보다 우리나라의 마라도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있으며, 해수면 기준 수심이 4.6m로 파도가 크게 치는 날이면 간혹 바다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곤 하지만 국제법상의 섬은 아니므로 영토나 영해 설정의 기점이 되지 않는다.

이어도는 예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 '이어도사나'는 '이어도에 가자!'라는 뜻으로, 전복과 미역 등을 따며 해녀로서 힘든 삶을 살았던 제주도 여인들의 이상향으로 간주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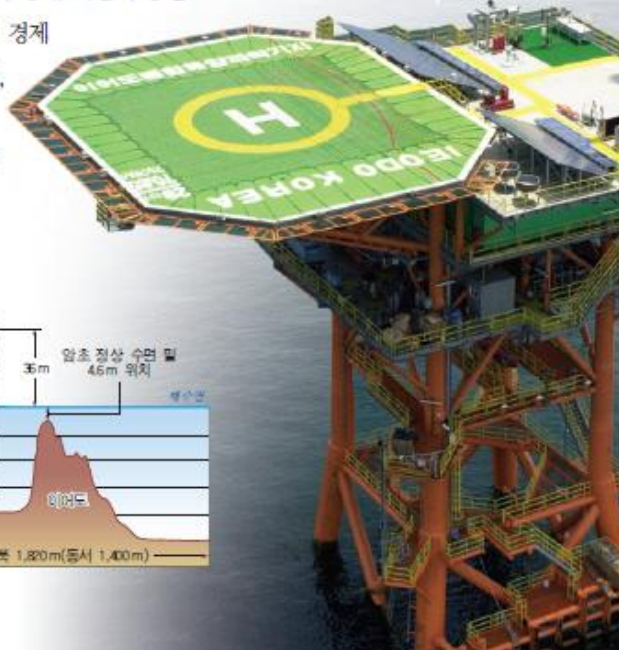


▲ 이어도의 위치

### 종합 해양 과학 기지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해양 과학 기지 건설을 위한 조사 활동을 시작하여 2003년에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세웠다. 이곳에서는 해양 및 기상 예보, 어장 정보, 해상 교통안전, 기후 변화 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어 비상시 구조 활동을 위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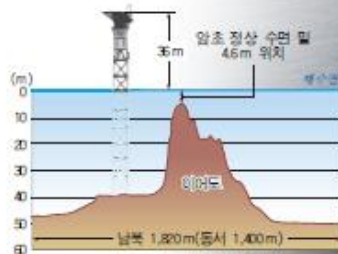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위치한 해역은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어도의 관할권은 우리나라에 있다. 한국과 중국의 영해 기선의 중간 지점을 경계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를 정하면,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된다.



### ● 귀속

재산이나 권리 등이 어떤 사람이 나 단체, 국가에 속하게 된.

▶ 이어도와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가장 얇은 곳이 해수면 아래 4.6m이며, 수심 5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 약 1,820m, 동서 1,400m에 달한다.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는 이어도 정봉의 남쪽 약 700m 지점에 있으며 이곳의 수심은 41m이다.



4 :: 1.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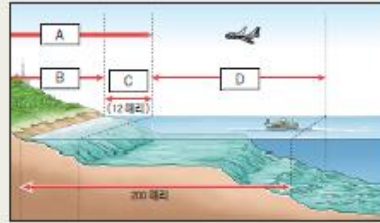
(출처 : 박병익 외, 한국지리, 천재교육, 34쪽)

**중단원 내용 짚고 가기**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독도는 해저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 )이다.
- (2) 독도의 수면 아래에는 매우 큰 ( )이 자리 잡고 있다.
- (3) 마라도의 남서쪽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는 ( )가 설치되어 있다.
- (4) 간도는 넓은 의미에서 두만강 북쪽 지역을 ( ), 압록강 북쪽 지역을 ( )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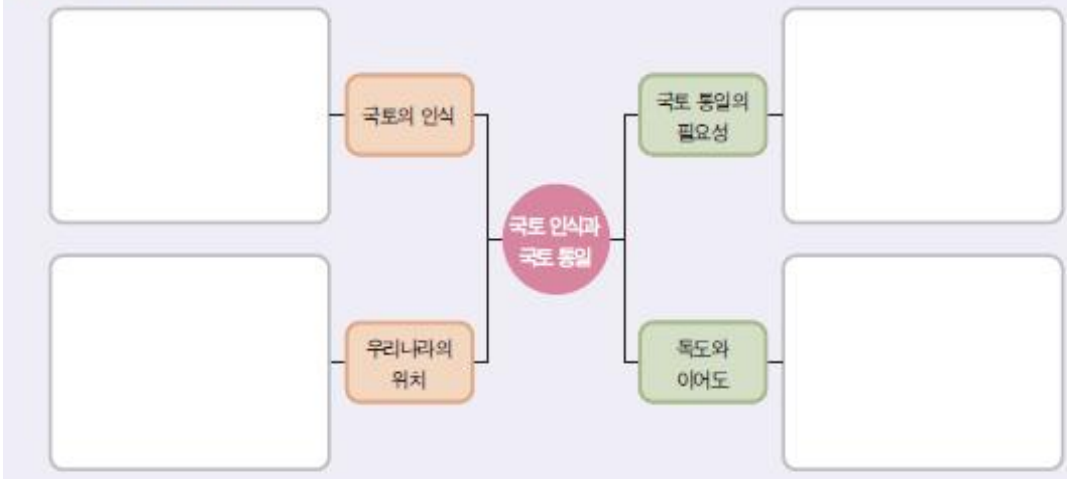
**2** A~D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고, 오늘날 D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까닭을 과학 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04 독도와 이어도 :: 035

(출처 : 박병익 외, 한국지리, 천재교육, 35쪽)

**1 단원 구조 완성하기**



(출처 : 박병익 외, 한국지리, 천재교육, 36쪽)

**2 단원 내용 정리하기**

04

- 독도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다.
-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가까워 우리에게 관할권이 있으며, 2003년에 해양 및 기상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출처 : 박병익 외, 한국지리, 천재교육, 36쪽)

대단원의 단원 개관에서 이어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중국, 일본 등의 주변 국가와 관련된 영역 갈등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영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단원 '04 독도와 이어도'에서의 주요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이어도의 위치와 종합 해양 과학 기지의 역할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두 개의 소단원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독도에 다른 하나는 이어도에 둬으로써 이어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단원으로 들어가서는 '2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에서 학습목표로 이어도의 위치와 종합 해양 과학 기지의 역할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이어도의 위치적 특성과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영역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여 분쟁에의 바람직한 대처방안에 대한 탐구를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이어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1쪽 더 알아보기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중간 수역, 잠정 조치 수역을 나타내는 지도에서 이어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34쪽에서는 전체를 이어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으며, 35쪽에서는 하단부에 있는 '중단원 내용 짚고 가기'에서 (3)번 문제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고 35쪽 '대단원 매듭짓기'에서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가까워 우리에게 관할권이 있고, 2003년에 해양 및 기상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건설하였다'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 교과서는 이어도에 대한 수록 내용이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용과 분량이 많다. 그렇다고 하여 기술된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어도에 대해서는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기술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2.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에 필요한 요소

### 1)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와 교수-학습 과정

그러면 앞으로 한국지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어도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최근 새로운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등장했다. 이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증대, 인재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과 창의·융합형 인재 필요, 문·이과 이분화된 교육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35)</sup>

주요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첫째,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진로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의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감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학생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 역시 변할 것인데,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내용 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제고, 창의적 사고 과정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주된 목표로 두고 전개된다. 특히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탐구과목,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도 현행 교육과정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36)</sup>

결국 이는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 논의와 교과서 편찬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과서가 개정·편찬될 것인데, 여기서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전문가들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일선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현장에서 필요하고 사용이 가능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가 가장 기본적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좋은 교재인가

1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요약, 2015.09.

1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계서, 2015.09.

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의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의 교과서가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교과서는 과거의 가치와 미래의 비전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시대정신 속에서 객관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를 사용하는 대상들이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기성세대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역할에서 우선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올바르게 모두를 담아낼 수 없다면,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은 끝내야 한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수용하고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과서를 지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 교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교과서 관련 정책은 전통적인 국가 주도적 정책으로부터 점차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로 전환하고 민간에 교과서의 심의를 위탁하는 방식의 변화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의 출현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과 교과서는 엄격한 발행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여전히 유사한 내용과 구성 체계를 갖춘 교과서들이 발행되고 있다.<sup>137)</sup>

특히 사회과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이슈들이 엄격한 검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저작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 저작의 근간이 되는 국가 교육과정의 구속력을 완화하고 아울러 교과서의 형태나 종류를 다양화하여 현장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sup>138)</sup>

이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개발한 교재가 학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

137) 김명정, 「사회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선 방안」, 「사회과교육」 제51권 4호, 2012.12. pp.211-225.

138) 김명정, 전제논문, pp.211-225.

어야 하고, 이미 출판되어 있는 도서도 학교교육과정에 적합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정, 사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을 지니면서 창의성마저도 담보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면, 다양성이 강조되는 요즘 교육에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리 영역의 경우를 보자. 이번 지리 영역의 교육과정은 주제 중심의 계통지리적 성격으로, ‘내가 사는 세계’로부터 시작하여 ‘더불어 사는 세계’로 마무리하는 하나의 통일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지리 교과는 모학문(母學文)이 문과와 이과에 동시에 개설되어 있는 대표적인 융합교과라고 할 수 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지리 교과는 이미 개정에 대한 논의 전부터 융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지리는 기후, 지형, 식생, 토양, 환경문제 등과 같은 자연 환경 및 인구, 자원, 도시, 산업, 문화 등과 같은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융합하여 사회와 인문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sup>139)</sup>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지리 교과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최대한 반영하는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암기 중심이 된다는 전형적인 암기 교과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기본원리의 이해를 통한 사회와 자연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확산적 사고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지리 교과서가 최대한 배려해야 할 내용이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한다. 그 형태로는 동료 평가, 학생 평가, 학부모 평가 등의 공식적인 평가가 있다. 그 외에도 자기 수업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나올 때는 설명이 많은 수업보다는 활동을 많이 했을 때가 비교적 평가가 후하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주된 것은 아

---

139) 지리학(地理學, geography)은 지표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및 인문 현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공간 및 자연과 경제, 사회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로, 공간이나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물리적 존재를 대상 안에 포함하는 점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양면의 성격이 있다. (위키백과)

무래도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 시간에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중요한 하나를 생각해야 한다.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수업 준비를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다보면 결국 설명식 수업이 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처럼 설명이 주가 되는 강의만 하면 학생들의 집중도는 생각보다 짧다. 금방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학생들의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중도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업과는 괴리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이런 모습이 단지 학교란 공간에서 펼쳐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수업 누수 및 결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이 주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활동이 어떤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교실에서 전개되는 교수-학습에서 학생 활동이 집중력을 결정하게 되고, 이 집중력이 형성된다면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려면 활동이 많은 수업을 행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토의·토론 등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이어도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수업으로 3차시에 걸친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한다.

물론 3차시의 수업이라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교육과정상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다. 다른 영역과의 형평성 관계, 이를 테면 독도나 간도와 관련된 수업은 1차시로 끝나고 이어도만 3차시의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3차시로 지리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한 것은 3차시의 시간을 확보하고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 이 중 하나의 과정안을 선택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겠다.

1차시 수업으로는 강의식과 문제해결학습을 결합시켜 한 차시를 전개하고, 2차시 수업으로는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므로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음의 3차시 수업으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sup>140)</sup> 방식의 수업모형을 제시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짓기이며,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건의 서술을 통한 스토리 형성하기라고 말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근래에서야 유행하고 있는 말이지만 인간이 사는 시대는 항상 이야기의 시대요,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란 말 속에는 근래 몇 십 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 안에 담겨있다. 이야기의 방식과 관습이 변화하여도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스토리텔링은 “사건의 서술을 통해 삶을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형성 및 소통하는 활동”인 것이다.<sup>141)</sup>

스토리텔링은 사건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 서사적 구조를 형성하고, 스토리텔링 서술을 통해 삶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나 자연 현상의 의미를 형성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훌륭한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의하도록 만든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이어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형성시킬 수 있다.

## 2) 학습 내용 구성과 방법의 지역화

사회 교과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지식, 가치 등을 다루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르치기가 수월치는 않다.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대상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사회과 교사들의 고민이 많다. 교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 제대로 된 수업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

---

140) 스토리텔링이란 단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사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는 모든 문화권에서 교육·문화 보존·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써, 또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는 방법으로써 공유되어 왔다.

141)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그러므로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추상적인 지식이나 가치를 구체화시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학습 내용과 방법의 지역화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다행인 것은 지리 교과에서의 수업 자체가 가치 판단이 주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한 추론의 과정 역시 중요하지만, 지리의 영역에서는 가치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회 탐구과목에 비해 지리 교과에서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생활방식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가고, 그 공간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라든가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지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분석을 통하여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그들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서 시작한다. 환경이라는 독립변수가 인간의 삶이라는 종속변수를 어떻게 끌어내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인지되는 지역의 문화는 주로 의식주와 산업, 고유의 풍속과 같은 부분이다. 이는 그 지역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인지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될 때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sup>142)</sup>

이 연구는 영토지리 영역에서 우리나라 전체 영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주변국가와의 치열한 영토관련 갈등에서 우리 지역사회와 밀접한 이어도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지 못하고, 관심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차원에서의 이어도 교육의 지역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는 학습자와 관련된 ‘지금, 현재, 이것’을 중시하는 학습방법으로 학습자의 능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사회과 교과의 주요한 소재와 장면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세계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뿌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지역화의 내용으로 ‘이어도’를 선정하였다.

142) 김다원, 「세계 지역에 대한 위치 지식과 위치학습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교육과(지리전공), 2008.02.

지역 이해와 연계한 지식은 지역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으로서, 위치에 대한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바탕이 된다. 이는 지역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기본 요소로서 위치 지식의 의미를 살리고 위치와 지명에 대한 인식으로 단순화 되어 묻혀왔던 위치 학습이 지리 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방법의 지역화를 피하여 우리 지역 사회와 관련된 기초 자료 조사 및 분석을 먼저 한다. 내용의 지역화 역시 필수적이므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끌어내어 수업에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수업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지리 교과 영역에 지역화 방안을 도입하고 강화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사회의 현재 모습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들이 이어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주변국과의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더 나아가 그 계승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근원은 땅에 의지하여 삶의 형태를 바꿔왔다. 존재하는 문화는 그를 둘러싼 환경이란 함수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했던 것이다. 중요한 독립변수가 인간 생활의 터전을 형성하는 위치, 지형, 기후의 영향력 등이다. 지리적 위치가 어떤가에 따라 생활 방식을 서로 달리 만들어간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생활 모습이라든가 삶에 대한 인식은 확연히 달라진다. 즉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지역적 특성은 다르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서 시작한다. 즉, 학생들에게 인지되는 지역의 문화는 주로 의식주와 산업, 고유의 풍속과 같은 부분인데 이는 그 지역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달한다. 그러므로 지역에 대한 인지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될 때 올바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 대한 상상력이 길러질 수 있다. 이때 지리학적 상상력은 필요한 것이며, 그 상상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추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그려보는 것이다.

특히 지구적 관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위치 지식은 그 지역과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변 환경 및 다른 지역과의 관계 입장에서 그

리고 그 지역의 기후 및 지형과 관련한 입장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위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지역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지역의 인문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 간 연계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이해가 결합하여 지역성의 파악과 지역의 생활 모습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역 이해를 위해서는 위치와 위치 속성 지식이 상호 연계 결합된 구조화된 위치 지식이 중요하다.<sup>143)</sup>

그래서 H. M. Metz(1990)는 ‘위치는 지역 사람들이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모태가 되고 이러한 위치에 대한 지식은 세계 지역 이해의 바탕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위치를 아는 것은 지역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 3) 학습자 주도의 탐구형 교과서 개발

학습자 주도의 탐구형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매체로서 지금까지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지식을 요약하고 압축하여 담아 놓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고가의 참고서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사교육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 전달이 주가 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지닌 교과서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할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의 길을 개척하고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들이 흔히 듣던 말이 다시금 생각난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기 낚는 방법을 배워주는 것이라는 말. 현 학교교육 상황을 보면서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어디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시효가 지나 버렸을지도 모를 지식을 정리해서 주는 것보다는, 주변에 널려 있는 그리고 계속 변하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어 정리하고, 자기에 맞게 재구성하여 급변하는 현

143) 김다원, 「중학생들의 위치 지식과 지역 이해와의 연계 유형 분석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v.43, 2008.06, pp.432-448.

실에 적용·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교과서’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가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가 바로 그것이다.

학습자 주도적인 교과서(LDT: Learner-Directed Textbook)란 자기주도 학습과 유사한 의미의 맥락을 가진다. 이러한 교과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큰 동기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게 유도하며, 학습한 것을 오래 동안 기억하도록 돕는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급변하는 세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서이기도 하다.<sup>144)</sup>

교과서 모형으로서의 탐구형 교과서(Inquiry Textbook)란 탐구과정이 생략된 채 완제품으로서의 지식을 나열한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를 말한다.<sup>145)</sup>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앞의 얘기를 종합한다면 지식 전달을 주요 목표로 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흥미있거나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며 결과를 도출해내는 접근 방식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구성에서 영국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분석한 것으로 사례 연구(Case Studies) 방식을 예로 든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영국의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이하 영국 교과서)는 한국의 교과서와는 달리 특정 주제나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연구(Case Studies)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가능하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영국의 교과서는 문제해결력과 탐구력, 그리고 학습 전이력 함양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46)</sup>

실제로 영국교과서 서문에는 사례연구 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주제나 이슈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주

144) 손명철,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세계지리 교과서 모형 탐색 - 영국의 고등학교 <World Geography: Case Studies>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3. Vol.21, No3, p.119.

145) 손명철, 상계논문, p.119.

146) 손명철, 상계논문, p.121.

제와 관련된 특정 지역이나 상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세계지리를 이해하는 데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47)</sup>

우리 교과서 역시도 이런 접근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의 주제는 교과서 구성 방식이나 내용 분석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자신의 연구 분야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강화시켜 학습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 3. 한국지리에서 이어도 교수-학습 방안

이어도는 단순히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암초가 아니다. 이어도는 제주인의 이상향으로서, 경제적으로는 무수한 해양자원의 보고로서,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이든 우리든 태평양으로 향하는 전략적인 전진기지로서, 역사적으로는 과거 탐라국의 중요한 해양 루트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어도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주 동떨어진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도나 간도 등에 비하여 우리 국민들의 인지도는 너무 낮다.

실제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1, 2학년 학생 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어도에 대해 잘 안다는 대답은 불과 8명이었다는 것은 제주에서조차도 이어도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sup>148)</sup>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된다면 이어도는 우리에게 그냥 상상 속의 섬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다행스러움이 있다면 최근 들어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키고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어도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147) 손명철, 상계논문, p.121.

148) 임병찬 외 3인, 「중국과 이어도 분쟁에 대한 조사활동 보고」, 『탐라지리교육연구』 제4호, 탐라지리교육연구회, 2014.02.



어, 차후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이어도를 어떻게 인식시키고 그들의 삶속에 온전하게 끌어 들이느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정리하여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이어도가 우리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것을 새로운 연구들을 통하여 그 이론적 근거들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어도를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유산으로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지리 교과에서 이어도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은 다음과 같은 수업 전개 구성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차시 수업을 기본 모델로 설정하고 각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전설 속의 이어도가 숨어 있던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어도에 대한 지리적·공간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어도의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을 지리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먼저,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가지고 효과적인 수업방향을 설계하고자 한다.

1차시에서는 강의식 수업이 주된 교수방법이다. 학생들이 이어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얘기를 나누었다가는 서로에게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첫 시간에는 영토지리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영토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중점을 두고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 중요성과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 된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영해는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 영공은 영토, 영해의 수직 상공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차시는 학습자가 주도하는 탐구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탐구식 수업의 주된 형식으로는 논쟁식 대립 토론이나 NIE와 결합된 논술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내용 전달 중심 교육에만 매달려서는 현대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학습 방법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우리 사회의 주된 교육 방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 학습이란 결국 학습자가 수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지식 탐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먼저 개요를 제시한 후에 학습자들에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 본격적인 탐구학습으로 가야한다. 여기에서의 탐구의 범주는 기존보다 더 넓게 보아 탐색-정리-발표까지로 확산시켜 내용을 구성한다.

주된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은 논쟁식 토론 학습과정이다. 이 학습과정은 학습자들에게 주제에 대한 탐구를 스스로 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방법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 자세한 탐구과정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전체 학습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3차시는 강의와 탐구학습을 통하여 획득한 개념과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되겠다. 이 과정에서는 먼저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과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들을 발굴,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삶의 모습을 유추하는 데는 지리학적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그 자료로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것은 전해 내려오는 민요나 설화, 이를 바탕으로 재창작된 문학작품, 당시 사람들의 기록물 등이다.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공식적 기록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구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당시 현실을 반영한 생생한 시대의 모습이 담겨있다. 지리적 내용과 상황이 적절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은 당시 시대를 겪지 못한 학생들에게 간접 체험을 제공하고, 추상적인 지리적 개념이 쉽게 이해되도록 돕는다.

스토리텔링 수업은 이어도와 관련된 내용과 주변 상황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수업으로 들여와 학습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우리들의 우리 이야기. 이를 통해 학습자들과 이어도는 끊을 수 없는 심리적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뒤따를 것이다.

이어서 제시되는 <표 1>은 이어도를 한국지리 수업에 소재로 활용할 때 교수-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를 구성한 것이다. 지식 목표로는 이어도의 수리적 위치, 지리적 환경, 지정학적 중요성, 기능 목표로는 이어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표 2>는 이어도를 활용한 지리 수업에 투입할 각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계획을 보여준다.

<표 1> 이어도 학습 목표와 학습 요소

분류	영역	학습요소
목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도의 수리적 위치를 파악한다.</li> <li>•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을 파악한다.</li> <li>• 이어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li> <li>• 이어도가 우리 수역에 포함시켜야 함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이해한다.</li> <li>• 이어도와 관련된 최근 쟁점들을 이해한다.</li> </ul>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도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다.</li> <li>• 이어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li> <li>• 이어도와 관련된 한국, 중국, 일본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이어도가 한국의 수역에 해당됨을 말할 수 있다.</li> <li>• 이어도를 둘러싼 자원의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다.</li> <li>• 이어도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다.</li> <li>• 이어도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역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li> </ul>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토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다.</li> <li>•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li> </ul>
내용	문화	• 이어도 관련 설화, 민요, 신화 등 역사적 자료
	지리적 환경	• 위치, 거리, 지형 특징, 기후 특징, 형성 과정
	중요성	• 수산·해저 자원 등 경제적 가치, 지리적 가치, 정치·군사적 가치
	해양 과학기지	• 이어도 과학기지 설립을 위한 노력과 과정

<표 2> 이어도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계획

과정	주요 내용
1차시 - 문제 제기, 개념학습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li> <li>•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영해는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 영공은 영토,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li> <li>•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80해리) 떨어진 동중국해 북서쪽의 수중 암초이다.</li> <li>• 한·중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경우 양국 간의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므로 서로 중첩되어 경계확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li> <li>• 중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을 한국 측의 과도수역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포함시켰다.</li> <li>• 우리 정부는 해양연구, 기상관측, 어업활동 목적으로 1995년부터 이어도 수역 내의 해저지형 파악과 조류관측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3년 6월 이어도 정봉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다.</li> <li>• 중국에서는 대륙붕 연장설, 형평성의 원리, 산해경 기록설 등을 제시하며 이어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li> </ul>
2차시 - NIE 학습, 논술 학습, 토론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도에 대한 자료(문헌, 신문기사, 방송자료 등)를 조사, 정리하여 토론과 발표를 준비한다.</li> <li>• 이어도 자료를 이용하여 이어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파악한다.</li> <li>• 현재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어도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한다.</li> <li>• 이어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li> </ul>
3차시 - 스토리텔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의 이어도 관련 이야기(구전문학, 시, 소설)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어도가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는지 이야기해 본다.</li> <li>• 이어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지식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li> </ul>

<표 3>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강의식 학습)

단원	I. 국토 통일과 국토 인식 4.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		차 시	1/3	대상	전학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이어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분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li>• 이어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토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다.</li> </ul>					
단계	방법	교수 · 학습 활동			창의 · 인성 지도상유의점	
도입 (5분)	문답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내용 확인</li> </ul> <p><b>[동기 유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수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불법 어업 활동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li> </ul> <p><b>[학습 목표 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 확인하기</li> </ul>			호기심유발 문제 인지	
전개	강의 학습	<p><b>[주요내용 학습 활동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영역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영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li> <li>-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li> <li>- 영해는 해안선의 형태나 섬의 분포에 따라 기준선이 다른 점을 이해시킨다.</li> </ul> </li> </ul>				



(40분)	<p>탐구 학습</p> <p>강의 학습</p> <p>탐구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공은 영토, 영해와 마찬가지로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영토와 영해처럼 명확한 한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대기권 정도로 한정된다는 것을 설명한다.</li> <li>-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필요성과 주권적 권리를 알아본다.</li> <li>• 탐구 활동을 통해 영역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간 어업수역도를 보면서 해양 경계 획정의 어려움을 알고, 배타적 어업 수역과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수역의 설정 배경을 찾아본다.</li> </ul> </li> <li>• 이어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알아보자.</li> <li>• 동아시아의 주요 영토 분쟁에 대해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본다.</li> <li>-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과 남중국해 주변국가의 난사군도 분쟁을 살펴본다.</li> </ul> </li> <li>•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어도와 관련된 분쟁의 개요를 알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장을 살펴본다.</li> </ul> </li> <li>• 탐구 활동을 통해 이어도가 우리가 지켜야할 땅인 것을 확인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도가 분쟁 지역인 원인을 알아본다.</li> <li>- 이어도에 관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어도를 우리 땅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 지도를 화면에 띄우고 설명한다.</li> <li>•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한다.</li> </ul> <p>확산적 사고</p>
-------	--	---	--

<p>정리 및 평가 (5분)</p>	<p>형성 평가</p> <p>학습 정리</p> <p>과제 제시</p> <p>차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성 평가를 통해 단원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간략히 확인한다.</li> <li>- 영해의 기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li> <li>• 이번 차시의 학습내용을 정리한다.</li> <li>• 이어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을 조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리한다.</li> <li>• 중국과의 이어도 갈등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을 고지한다.</li> <li>- 미리 진행 및 준비자, 토론자, 심판자를 자체적으로 선발하게 한다.</li> <li>- 토론에 필요한 토론진행 계획표 및 준비 양식을 미리 배부하여 토론 준비를 철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제시는 유인물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준비한다.</li> </ul>
---------------------------------	---	---	---

<표 4>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논쟁식 토론 학습)

단원	I. 국토 통일과 국토 인식 4.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	차 시	2/3	대 상	전학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도와 관련된 최근 쟁점들을 이해한다.</li> <li>• 이어도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다.</li> <li>• 이어도와 관련된 한국, 중국, 일본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이어도가 한국의 수역에 해당됨을 말할 수 있다.</li> </ul>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창의·인성 지도상유의
도입 (5분)	문답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내용 확인</li> <li>-지난 시간에 공부한 우리 영토에 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주권적 권리를 알아보고, 해양 영역의 중요성, 이어도의 중요성 등을 간단히 정리해준다.</li> </ul> <p><b>[동기 유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 지식채널e 그들의 논리’를 통해 영토를 둘러싼 양국의 주장과 각 논리의 모순점을 이야기한다.</li> </ul> <p><b>[학습 목표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 측과 한국 측의 주장을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다.</li> </ul>			• 미리 조사해 온다.
전개 (42분)	토론 학습	<p><b>[사전 활동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의 규칙 및 유의점에 대하여 알려준 후 토론을 시작한다. (5분)</li> <li>-진행을 담당할 학생들이 자리를 배치·정리하게 한다.</li> <li>-토론 주제 제시: 이어도는 한국 측 과도수역에 포함되어야 하는가?</li> <li>-양측 학생들을 불러 2분 정도 발제(입론) 내용에 대해 작은 소리로 전략을 짜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준비자, 토론자, 심판자를 선정한다.</li> <li>• 3:3 대립토론(Debate) 방식으로</li> </ul>

<p>전개 (42분)</p>	<p>-동시에 심판자들을 불러 심판의 역할과 판정내용을 파악하도록 심판 용지를 활용하여 설명한다.</p> <p><b>[토론 활동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 발제(입론): 찬성팀 제1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정읍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80해리), 중국의 여산도(余山島, 서산다오)로부터 동쪽으로 287km(155해리), 일본의 조도(鳥島, 도리시마)에서 276km(149해리)에 위치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가깝고, 수면 밑 4.6m 아래에 있으면서 파도가 높을 때는 그 모습이 수면위로 드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li> <li>-우리 해저광구 제4광구에 있는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 분으로 현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li> <li>-1653년 하멜표류기의 표류해상도, 1750년(영조26년) 해동지도 중 제주삼현도 등에서 이미 이어도가 우리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li> </ul> </li> <li>• 반대 발제(입론): 반대팀 제1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어도는 중국발원의 silt 지역 안에 있으므로 중국 관할 지역 내에 있다.</li> <li>-이어도가 중국 본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선상에 있으므로 지질학적 관점에서 자국 관할권에 속한다.</li> <li>-중국 문헌 산해경에 ‘쑤옌자오(소암초, 蘇岩礁)’를 기록하고 있다.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이다.</li> </ul> </li> <li>• 작전회의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전회의에서는 상대방의 입론에 대한 심문 전략을 짚</li> </ul> </li> </ul>	<p>진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준비물: 토론 사전 준비물, 교실 배치</li> <li>• 발제 과정에서 나온 상대의 주장 내용들을 잘 정리하게 한다.</li> <li>• 시간 엄수하게 한다.</li> </ul>
---------------------	---	---

	<p>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 심문: 반대팀 제2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해양법상 간출지는 만조 시에는 수중에 잠물하지만 간조시마다 수면에 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도는 간출지가 아니라 수중 암초이다. 설령 이어도가 해수면 아래가 아닌 해수면위의 암초라 가정할 지라도 먼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 무인암석에 대하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li> <li>-아직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도에 인공구조물을 세운 것은 문제이다.</li> <li>-쑤옌자오(소암초, 蘇巖礁·이어도의 중국 명칭)는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위치해 있다. 중국과 한국은 쑤옌자오를 영토로 여기지 않으므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쑤옌자오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li> </ul> </li> <li>• 찬성 심문: 찬성팀 제2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lt line의 개념은 황해가 대부분의 중국기원 퇴적물로 뒤덮였다는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가설이다. 황해가 많은 퇴적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황해가 대부분 이것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인 것이다. 하지만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중국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더라도 과거 황해 퇴적물 기원지 연구 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때로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믿기 어려운 데이터도 많다고 한다. 이 연구 논문 결과 발표 후 한국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황해 퇴적물 기원은 중국과 한국 기원 퇴적물의 혼합체로 나타나는데,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문과정에는 상대방이 절대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li> </ul>
--	--	--



	<p>이후 중국 정부는 이 주장을 두 번 다시 못하고 있다.</p> <p>-국제 판례의 경향은 “마주 보는 국가 간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대륙붕을 포괄하는 단일 해양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실제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2년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벙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선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를 인용하여 중간선(마주하는 두 국가의 연안 가운데를 연결한 선)으로 결정했다. 이 판결을 적용할 경우 이어도는 우리나라 해역에 속하게 된다.</p> <p>-산해경이라는 문헌은 《사기》에서 사마천조차 감히 말할 수 없는 기서로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본래 비과학적이고 신비한 신화를 수록한 책이므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암초(蘇岩礁, Su Rock)’가 이어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떤 것도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전회의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반박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기록한다.</li> </ul> </li> <li>• 찬성 반박: 찬성팀 제3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80해리) 떨어진 반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余山島)로부터의 거리는 동쪽으로 287km(155해리)에 이른다. 배타적 경제수역(EEZ)가 겹치는 해역은 협상을 통해 경계선을 획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어도 해역은 한국에서 훨씬 가깝다.</li> <li>-특히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어도 해양기지 설립은 영해 또는 해양경계획정의 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양관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 심문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작전타임을 갖도록 한다.</li> <li>• 반박은 찬성 측 부터 하고, 상대방에 반응하거나 답변해서는</li> </ul>
--	---	---

	<p>및 조난구조를 위해 설립한 것이다.</p> <p>-고서(古書)에서도 이어도가 우리의 영역임을 잘 알려주고 있지만,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앞서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에 속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 반박: 반대팀 제3 토론자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륙붕 퇴적물과 해저지형을 최대한 고려하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li> <li>-중국의 긴 해안선, 바다에 접해 살고 있는 조업인구 등을 감안해 이어도가 중국 수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이어도 동쪽에 그어야 한다.</li> </ul> </li> <li>• 작전회의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기서 작전회의가 필요한 경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각 함께 모여 전략을 짤 수도 있다.</li> </ul> </li> <li>• 자유토론: 각 1분 이내 부여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토론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li> <li>-자유토론은 한 사람의 발언이 1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한 번 발언 후에는 다른 사람이 발언한 후에야 발언 가능하다.</li> <li>-자유토론 후 양측이 잠깐 의논하고 최종적인 자신의 주장을 하도록 한다.</li> </ul> </li> <li>• 찬성 정리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 원칙, 즉 형평의 원칙은 설득력이 없다.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은 동질적인 연속체로 된 하나의 대륙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먼저 잠정적으로 등거리 선을 채택하고, 그 다음 이 등거리 선을 수정해야</li> </ul> </li> </ul>	<p>안 된다. 반박을 학습지에 기록한다.</p>
--	---	-----------------------------

		<p>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적용하여야 한다.</p> <p>한중 양국의 중간수역은 대부분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중시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법적 타당성을 갖는다. 최근의 국제 판례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p> <p>리비아-몰타 사건에서 보듯이 대안국간의 거리가 400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저지형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단일경계선을 긋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중국의 종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 정리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해와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소위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기준을 무시하고 중간선 원칙만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해양경계가 명확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어도 주변수역을 한국 측 과도수역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잠정조치수역으로 유지하여야 한다.</li> </ul> </li> <li>• 심사 결과 정리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판자는 결과점수를 합산, 발표하고 양측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이야기한다.</li> </ul> </li> <li>• 결과 발표 (3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경우 교사는 토론 내용과 심판 판정을 확인할 수 있다.</li> </ul>
정리 평가 (3분)	정리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평을 통해 토론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간략히 확인한다.</li> <li>• 스토리텔링: 이어도와 관련된 스토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요 ‘이어도 사나’, 최부의 ‘표해록’, 이청준의 ‘이어도’의 내용을 발췌하여 나눠주고, 당시의 상황이나 그들의 삶을 상상하고 정리하도록 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인물 제작</li> </ul>

<표 5> 실제 교실에서의 대립토론 Format

순서		내용 및 토론자	시간	비고	
① 사전 설명		토론 규칙 및 유의점	5분		
토론	②	찬성 입론	찬성팀 제1토론자	3분	▶ 시간 엄수 (타이머 작동)  ▶ 평가표에 제시된 항목을 유념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자유토론은 한 사람의 발언이 1분을 초과하면 안 되고, 한번 발언 후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한 후 발언 가능
		반대 입론	반대팀 제1토론자	3분	
	③	작전회의		2분	
	④	반대 심문	반대팀 제2토론자	3분	
		찬성 심문	찬성팀 제2토론자	3분	
	⑤	작전회의		2분	
	⑥	찬성 반박	찬성팀 제3토론자	3분	
		반대 반박	반대팀 제3토론자	3분	
	⑦	작전회의		2분	
		자유토론	전체토론 (각1분)	3분	
⑧	찬성 정리	찬성팀	2분		
	반대 정리	반대팀	2분		
⑨ 토론 결과 심사 발표		심사 결과 정리	3분	▶ 복도 대기	
		총평 및 결과 발표	3분	▶ 토론실 입실 후 총평 및 판정	
		총소요시간	42분		

<표 6>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스토리텔링 학습)

단원	I. 국토 통일과 국토 인식 4. 국토의 정체성과 영토 문제	차 시	3/3	대상	전학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인에게 이어도는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li>• 이어도와 연관된 제주인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li> </ul>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창의·인성 지도유의점
도입 (5분)	문답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학습 내용 확인</li> </ul> <p><b>[동기 유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도 사나’ 민요를 들려주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한다.</li> </ul> <p><b>[학습 목표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시간에 나눠준 유인물 속의 내용들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소감을 간단히 발표하도록 한다.</li> </ul>			• 이어도 민 요 자료
전개 (40분)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로 제시한 &lt;자료1&gt;의 이어도와 관련된 내용을 낭송해주면서 지리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lt;자료1&gt;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도이어라 이어도이어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도이어라)                      이어 허맨 나 눈물 난다                      (이어하면 나 눈물 난다)                      이어 말은 마랑근 가라                      (이어란 말은 하지 말고 가라)</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산적 사고</li> <li>• 학습 준비물: 컴퓨터, 빔 프로젝트, 이어도 관련 자료</li> </ul>



	<div data-bbox="497 293 1177 55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  (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엿 해라  (이어도가 반半이라고 하더라)  -맷돌노래, 제주민요-</p> </div> <p>-내가 만일 당시 사람이라면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p> <p>-작자 미상의 구전민요인 ‘이어도 사나’가 만들어진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p> <p>-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인 ‘해남’이나 ‘강남’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2&gt;를 차분히 읽게 하면서, 산꼭대기에서 멀리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바다를 바라보는 상상을 하게 한다.</li> </ul> <div data-bbox="497 1088 1187 190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lt;자료2&gt;</p> <p>물결은 용솟음치고 바다 빛은 희다. 예전에 정의현감 채윤혜(蔡允惠)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p> <p>“제주 늙은이들이 말하기를, 맑게 갠 날 한라산 꼭대기에 오르면 멀리 서남쪽으로 아득히 떨어진 바다 밖에 백사장 같은 것이 보인답니다.”</p> <p>지금 보니 한라산에서 보인다고 그걸인가 싶은데 이는 백사장이 아니고 백해(白海)다. ...</p> <p>-최부, 『표해록』 제1권 무신년, 윤정월 7일-</p> <p>“내가 표류하여서 백해(白海)로 들어가 서북풍을 만나 남하하였을 때 산 모양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 ...</p> <p>-최부, 『표해록』 제3권 무신년, 3월 29일-</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산적 사고</li> </ul>
--	--	--

	<p>-왜 넓은 바다 한 가운데서 바다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까?</p> <p>-만일 내가 망망대해 한 가운데서 하얗게 파도가 부서지는 ‘백해’를 만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3&gt;을 정독하도록 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lt;자료3&gt;</p> <p>긴긴 세월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p> <p>이어도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제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전설의 섬이었다. 천 리 남쪽 바다 밖에 파도를 뚫고 꿈처럼 하얗게 솟아 있다는 제주도 사람들의 피안의 섬이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의 눈에서는 언제나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수수께끼의 섬이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의 구원의 섬이었다. 더러는 그 섬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번 그 섬을 본 사람은 이내 그 섬으로 가서 영영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섬이었다. ...</p> <p style="text-align: right;">-이청준, 『이어도』-</p> </div> <p>-소설 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p> <p>-소설 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이어도는 고된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산적 사고</li> </ul>
--	---	--

		<p>의 터전으로 묘사된 민요와 달리, 아무도 알 수 없는 꿈의 낙원, 유토피아로 표현하고 있다. 소설과 민요 속에 투영된 이어도와 당시 사람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해 보자.</p>	
<p style="text-align: center;">정리 평가 (5분)</p>	<p>학습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를 학생들 스스로 주변 장소와의 관계,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도에 표시하고 서술하게 한다.</li> <li>- 위치, 거리, 방향, 주변 지역의 공간 개념을 통해 이어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한다. 또한 자신의 말 또는 글로 간략히 정리한다.</li> </ul> <div data-bbox="501 913 1192 1570" data-label="Figure"> </div>	<p>차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시간에 전개될 내용을 소개한다.</li> </ul>

<표 7> 이어도 지리 교수-학습 수행평가 양식

한국지리 수행평가 ( )회 제 학년 반 번 이름 :	채점
<p>◆ 이어도 관련 기사 스크랩</p> <p>이 공간은 기사를 붙이는 공간입니다. 채점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기 바랍니다.</p> <p>※ 수행평가 안내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마감 : 0000년 00월 00일 0요일 00시 00분</li> <li>2. 제출방법 : 개인별로 제출</li> <li>3. 내용 : 주제 관련 기사를 2개 붙이고, 기사 내용 요약, 용어정리,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볼펜으로 써서 제출.</li> <li>4. 스크랩 기사기준 : 이어도 관련 모든 기사(국가, 날짜, 온오프라인에 대한 기준 없음). 단, 출처를 확실히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li> </ol> <p>※ 유의사항 : 제출시간까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p>	
<p>◆ 출처 - 언론사 : _____, _____ 년 월 일 요일 기사</p>	
<p>◆ 기사 내용 요약 (기사의 내용을 2~3문장으로 요약하세요)</p> <p>.....</p> <p>.....</p> <p>.....</p>	
<p>◆ 용어정리 (모르는 용어를 찾아서 사전적인 용어정리하세요.)</p> <p>.....</p> <p>.....</p> <p>.....</p> <p>.....</p>	
<p>◆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쓰기</p> <p>.....</p> <p>.....</p> <p>.....</p> <p>.....</p>	

## V. 맺음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의 영토와 관련된 영유권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존재했고, 세월이 지나더라도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독도나 간도는 물론이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 역시 그렇다.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올바른 인식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우리 영역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의 지리적 위치는 물론이고 역사적 근거 역시 바로 알아야 하며, 영역에 대한 불확실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영역은 더 소중하게 다가올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추후 비판에서 결코 비켜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현장에서의 변화이다. 사회 탐구 과목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문제가 심화될수록 우리 학생들에게 영토와 자기 국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교과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특히 ‘지리’ 교과목이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그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이어도가 우리에게 어떤 곳이고, 이어도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리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결과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중암초인 이어도에 대해 제주지역의 학생들의 인식도는 낮은 편이다. 이어도의 위치마저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한·중 간 이어도 분쟁의 본질 역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영토 관련 교육의 영향으로 인지도가 높은 반면, 이어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교육청조차도 이어도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현실에서 중국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저변에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어도에 대해 방심하다가는 자칫 중국에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어도 관련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제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어도를 제주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어도 황금어장은 지금도 제주어선들의 출어지역이며, “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렌 허다”는 제주 민요의 구절은 일찍부터 제주 사람들이 이어도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에게 살아서는 못가고 죽어서야 비로소 가는 이상세계로 알려졌다.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현실적인 삶의 조건임과 동시에 이상향이다.

셋째, 이어도 해역은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복되어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 관례상 중간선 원칙을 제시하며 이어도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중국은 우리의 중간선 적용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평의 원칙만을 되풀이하며 자신들의 더 많은 해양 영역을 가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이어도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 간도를 묶어 영토교육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어도는 공통적으로 이어도해양종합과학기지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명하면서 소개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교과서 내에서의 기술 공간의 확대가 절실해진다.

다섯째, 한국지리 수업시간에 이어도를 소개하기 위해 강의식(개념학습), 토론학습(대립토론), 스토리텔링학습 방안 및 수행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수준과 학교 상황에 따라 적절히 투입하면서 이어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영유권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래 세대에게 이어도가 확실히 우리에게 속한다는 신념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 신념은 이어도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어도를 수호하는데 있어 강한 자신감을 형

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섯째, 향후 나타나게 될 동류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어도를 학교 수업의 전면에서 내세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지리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토 교육과 더불어 더 나아가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다. 문제 해결 방식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거나 국가주의적 사고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져 우리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분쟁이라는 것은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이 치열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분쟁의 전개과정에서 필요한 자기주장과 논리적 근거는 갖추어야 한다. 이것을 꼭 국가주의의 산물로 여길 필요는 없다.

문제는 해결 과정과 방법이다. 발생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이라면 이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문제를 대립과 갈등의 틀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상호협력적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상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조화이다. 세계화 현상은 지구촌의 현실 사회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어떤 분쟁도 한 국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제관계 자체가 국가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한다지만, 세계화의 기류 속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독단적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자칫하면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원인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우리의 삶은 외부 지역과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문제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 간의 진정성 있는 국제적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는 타 국가들과의 공동 대처의 필요를 인지하고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주

저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변화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적 질서가 존중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지리 교육 역시도 학생들에게 세계를 보는 시각을 형성하고 세계 환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리 과목 자체가 지구촌 사람들과 장소들의 다양성에 관한 인식, 이해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과목이다. 이는 지구촌 시대에 상호의존하고 협력하여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세계시민교육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침묵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 간 분쟁의 경우도 세계시민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는 것이다. 국제 분쟁의 해법은 자국 중심의 국가이기주의적인 사고의 범주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형성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져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논문

- 강근형,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해양분쟁 요인과 대책」, 『이어도 연구』 창간호, 도서출판 각, 2011.
- 강민정, 「지리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강병철·프리다크리스틴밀러·양금희, 「이어도 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이어도 연구』 제4권, 온누리디엔피, 2013.
- 강병철, 「이어도와 중국의 동북아 해역분쟁」, 『이어도 연구』 제3권, 온누리디엔피, 2012.
- 강희각, 「한·중·일 해양 분쟁 심화요인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정치 및 지역발전학과, 2013.
- 고충석,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건설 10주년에 즈음하여-이어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 『이어도 저널』 Vol.4, 온누리디엔피, 2013.
- 김동윤, 「이어도 담론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12.
- 김동전, 「이어도와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역사학적 인식」-동아시아 해역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한국학연구』 제32집, 2014, 533-560.
- 김명정, 「사회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선 방안」, 『사회과교육』 제51권 4호, 2012.12. 211-225.
- 김민정,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 김병렬,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해양분쟁 요인과 대책」, 『이어도 연구』 창간호, 도서출판 각, 2011.
- 김부찬, 「동아시아 해양 갈등과 이어도 문제」, 『이어도 저널』 Vol.5, 온누리디엔피, 2013.
- 김영구, 「해양영토 이어도 문제와 한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확보를 위한 당면 과제」, 『이어도 연구』 제2권, 도서출판 각, 2011.

- 김은석, 「에우토피아, 이어도의 존재론적 의미」, 『이어도 연구』 제4권, 온누리디엔피, 2013.
- 김태영, 「한·중 해양관할권 제도에 관한 연구: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 김현수 · 양희철, 「한반도 주변수역 對中 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이어도 연구』 제4권, 온누리디엔피, 2013.
- 김희열,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패권주의」, 『이어도 연구』 제4권, 온누리디엔피, 2013.
- 남호엽,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권 3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1.
- 서태열,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2009년 12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9.
- 손명철,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세계지리 교과서 모형 탐색 - 영국의 고등학교 <World Geography: Case Studies>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3. Vol.21, No3, 117-128.
- 송성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이어도 저널』 Vol.5, 온누리디엔피, 2013.
- 송성대,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 『이어도 연구』 제4권, 온누리디엔피, 2013.
- 송성대, 「탐라 해민(海民)들의 로망 이어도토피아」, 『이어도 연구』 제3권, 온누리디엔피, 2012.
- 송성대, 「이어도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이어도 연구』 제2권, 도서출판 각, 2011.
- 송성대, 「지리적 팩트에 기반한 제주해민들의 이어도 픽션」, 『이어도 연구』 창간호, 도서출판 각, 2011.
- 송성대, 「한중간 이어도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2010.06.
- 송호열, 「중학교 사회2 교과서의 독도(獨島) 중단원 비교 분석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23 No.4, 2013.



- 스콧 워렌 헤럴드, 「한·중관계에서 영유권 분쟁의 중요성과 미국의 역할」, 『이어도 저널』 Vol.5, 온누리디엔피, 2013.
- 양덕순·윤원수, 「이어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인지도 제고방안」, 『이어도 연구』 제3권, 온누리디엔피, 2012.
- 오상학, 「한중일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석 인식」,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위탁연구사업 최종결정보고서(Ⅱ)』,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 2010.
- 유수현,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영토 교육 내용 분석: 고등학교 한국 지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2013
- 윤 황, 「이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어도 연구』 제4권, 온누리디엔피, 2013.
- 이동인·박성화·김정창·이준호, 「이어도 기지 기상관측 기기의 자료 검증 및 개선 방안」, 『이어도 연구』 제4권, 온누리디엔피, 2013.
- 이두원, 「CEDA 찬반 논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효과적인 입론, 교차조사, 반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4,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90-123.
- 이성우, 「영토분쟁의 분석적 이해와 과학적 대응」, 『이어도 저널』 Vol.5, 온누리디엔피, 2013.
- 이지용, 「중국의 대륙·해양 국가화와 해양 영유권 분재배경 및 전망」, 『이어도 저널』 Vol.5, 온누리디엔피, 2013.
- 이창형, 「다오위다오(釣漁島) 관련 중국의 입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어도 저널』 Vol.4, 온누리디엔피, 2013.
- 이태성, 「의사소통 합리성에 근거한 사회과 토론 수업의 설계 및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태주·김다원, 「지리교육에서 시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2호, 2010, 293-317.
- 임덕순, 「지리교육에 있어서의 영토교육의 중요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
- 임병찬 외 3인, 「중국과 이어도의 분쟁에 대한 조사활동 보고」, 『탐라지리교육연구』, 2013.

- 임안나, 「스토리텔링 기반의 수학 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2012.
- 정호진, 「동북아 해양레짐 연구: 해양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지역협력전공, 2014.08.
- 조성윤,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압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 『이어도 연구』 제4권, 온누리디엔피, 2013.
- 조성윤,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 『이어도 연구』 제3권, 온누리디엔피, 2012.
- 조철기, 「비판교육학의 공간적 관심과 지리교육의 재개념화」, 『대한지리학회지』 47(5), 2012.10, 775-790.
-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정책포럼,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2.
- 최병학,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의 확보」, 『이어도 연구』 제4권, 온누리디엔피, 2013.
- 최장근, 「전후 일본의 센가쿠 제도에 대한 영토전략」, 『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2009.
- 허은실, 「한·일 초등 사회과의 영토교육관련 내용비교: 교과서와 교육과정 분석을 기초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학과 사회과교육전공, 2013.

## 단행본

- 강준만, 『대중문화의 곁과 속』, 인물과 사상사, 2013.
- 고충석·강병철, 『이어도 해양분쟁과 중국 민족주의』,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3.
- 권순현, 『교실을 춤추게 하는 감동의 수업여행 : 영혼을 흔드는 스토리텔링 수업』, 즐거운 학교, 2014.
- 김성미, 『동방의 마르코 폴로 최부』, 푸른숲, 2008.05.
- 배진수,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 한국해양전략연구원, 1998.
- 백영균 외 8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2013.
- (사)이어도연구회, 『이어도 바로알기』, 도서출판 선인, 2011.
- 서태열,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5.

- 송성대, 『두 개의 얼굴, 이어도』, 이어도연구회, 도서출판 각, 2015.
- (재)한국해양재단, 『해양영토 바로알기』, 서울: (주)벽호, 2014.
- 좌혜경 외, 제주민요채록집 『제주민요사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15, 하나  
CNC출판, 2015.09.
- 차경수·모경환, 『사회과교육』, 동문사, 2008.
-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 홍중기,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한울, 2013.05.



<이어도 일반> 가장 알맞은 한 개의 응답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4. '이어도'하면 떠오르는 생각(단어)을 간단하게 써 주십시오.

( )

5. 이어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이 있다.                      ② 들어본 적이 없다.

6. 이어도가 실재하는 섬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실재한다.                                  ② 실재하지 않는다.

7. 학생이 생각하는 이어도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 ① 제주인의 이상향                      ② 해양과학기지  
③ 해양영토                                  ④ 전설 속의 섬  
⑤ 수중암초                                  ⑥ 영유권 분쟁지역  
⑦ 없다

8. 지금까지 학생이 이어도를 접하게 된 첫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이어도 관련 민요                      ② 이어도 관련 전설  
③ 이어도 관련 소설                      ④ 이어도 관련 시  
⑤ 이어도 관련 신문이나 방송          ⑥ 학교 수업 내용  
⑦ 부모님 등 구전으로                      ⑧ 기타( )

<이어도 영토> 가장 알맞은 한 개의 응답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9. 학생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① 동해    ② 서해  
③ 남해    ④ 동중국해  
⑤ 모른다

※ 다음 설문문항 답변에 √ 표시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이어도 해양 갈등 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어도가 중국과 일본이 탐내는 요충지라 는 것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이어도 해역이 황 금어장임을 잘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이어도 해역의 해 저광물자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이 생각하는 이어도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 ① 군사·안보적 가치                      ② 지리·과학적 가치  
③ 문화·상징적 가치                      ④ 기타(                      )

<이어도 교육> 가장 알맞은 한 개의 응답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15. 재학 중 처음으로 이어도를 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16. 학창시절에 이어도 관련 내용을 접한 교과는 무엇입니까?

- ① 지리    ② 사회  
③ 국어    ④ 국사  
⑤ 음악    ⑥ 없다



